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2020 영등포구

마을과 자치의 이야기



2020 영등포구

마을과 자치의 이야기

contents

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활동지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 5

1. 운영 방향 ····· 6

2. 2020년 주요사업 ····· 7

Ⅱ. 2020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11

1. 2020 영등포구 공모사업 개요 ····· 13

1) 공모사업 현황 ····· 14

2) 공모사업 지원 절차 ····· 16

2. 공모사업 지원 과정 ····· 17

3. 공모사업 소개 ····· 25

1) 2020 영등포구 공모사업 리스트 ····· 26

2) 공모사업별 주요사업 소개 및 참여자 소회 나눔 ····· 30

4. 함께 하는 사람들 _ 마을지원활동가 인터뷰 ····· 145

Ⅲ.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 과정 ····· 169

1.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구성과정과 운영 ····· 171

1) 주민자치회 구성 ····· 172

2) 주민자치회 운영 ····· 173

2.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소개 ····· 175

3.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사람들 - 30인을 만나다! ····· 183

4. 함께하는 사람들 _ 동자치지원관 인터뷰 ····· 245

마을기록가, 꿈을 기록한 시간에 대한 짧은 단상 ····· 257



I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활동지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운영 방향

비전	주민의 필요에 의해 계획하고 만드는 마을자치 공동체 실현			
미션	주민주도와 민관협치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			
핵심 목표	주민의 등장과 성장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운영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생태계 구축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	센터 운영내실화와 사업성과확산
전략 과제	-주민주도 활동의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다양한 참여자 확대와 유입을 위한 특화 사업 기획, 운영 -단계별 마을자치활동가의 역량강화 지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지원 -영등포 주민자치회 주민리더 성장지원	-영등포 특성을 반영한 마을자치모델 개발과 운영 -지속가능한 일상의 마을 자치의 공론장 기획, 운영	- 신뢰로운 민-관,민-민 협력 체계 구축 - 마을자치 활동 참여 주민 간의 네트워크 연결 - 타 영역 및 지역과의 교류, 협력	-전문적이고 투명한 마을자치 센터 운영 -사업성과관리 체계화 -마을자치의 추진과정과 성과 아카이브와 확산

2020년 주요사업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마을팀
공모사업 지원
주민리더와 활동가 성장지원
마을자치 생태계 활성화지원
홍보 및 성과확산
자치팀
주민자치회 시범동지원, 촉진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치활성화 기반조성
민관협력 체계구축
성과확산

마을팀

다양한 주민이 쉽게 참여하는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사업설명회”
- 공모사업을 더 즐겁게 잘 하고싶은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 지원 “마을아카데미”
- 마을자치활동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를 알려주는 “열린마을강좌”
-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마을지원활동가의 “사전상담 및 컨설팅”
- 다른 주민들과 서로 관계맺고 다양한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파티”

마을 · 자치 활동을 하는 주민리더와 활동가 성장지원

- 다양한 의제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민주시민 공론장”
- 영등포구 주민들이 마을자치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우수사례탐방”
- 마을자치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영등포구 마을자치 생태계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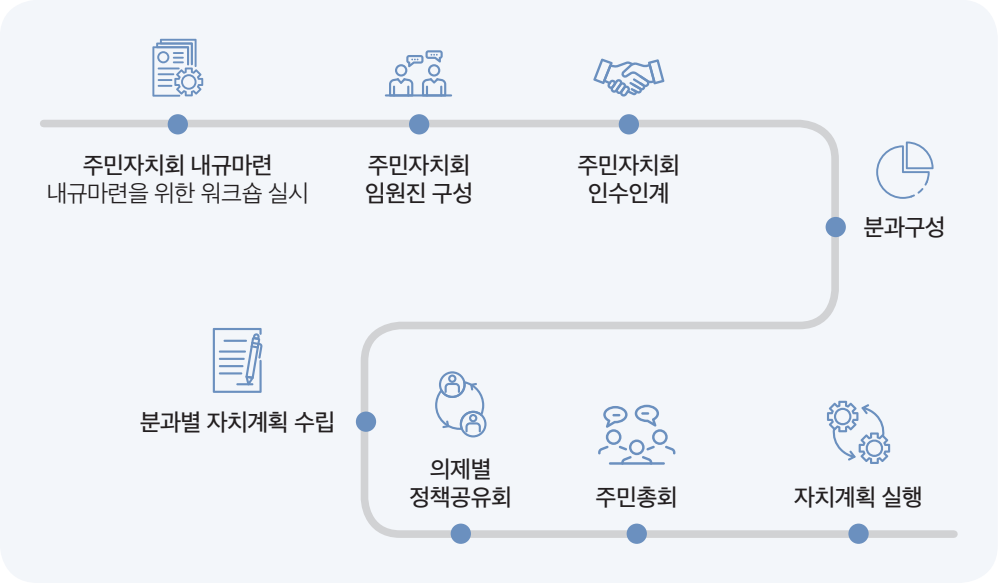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이 마을자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아동청소년 마을계획”
- 영등포 구민 누구나 마을자치를 알 수 있는 “영등포마을자치축제”
- 동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 숙의하고 실행해보는 “동단위계획형 동지역회의 운영”
- 골목단위의 이웃관계망을 확장하고 골목의 의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골목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리빙랩”

마을공동체 홍보 및 성과확산

- 영등포구의 다양한 마을자치활성화 과정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뉴스레터 발간, 사례집 및 성과집 발간
- 마을자치 활동의 의미있는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자치팀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사업추진과정 지원, 촉진



주민자치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임원 및 분과원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다양한 마을자치를 주제로 한 “자치학습동아리 운영”

영등포구 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

- 마을자치의 주요한 의제와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마을자치포럼”
- 누구나 마을의 주요 이슈와 일상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누구나 대화모임 공론장”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민-관 협력을 위한 “민-관 간담회 및 워크숍”

주민자치회의 의미있는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확산을 위한 “영상제작 및 성과집 발간”


화장실 위치

Ⅱ



2020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 2020 영등포구 공모사업 개요

공모사업 현황

씨앗기
이웃만들기 사업

주요내용
동단위
신규 주민모임 형성

지원 갯수
25개

지원 규모(단위:천원)
1,000

새싹기
공동체모임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주민모임 간 상호연결 및
동일한 분야의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관계형성 및 확장

지원 규모(단위:천원)
2-3,000

지원 갯수
22개

새싹기
우리 마을 해결 사업

주요내용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하는 사업

지원 갯수
8개

지원 규모(단위:천원)
5,000

골목 만들기

탁 트인 골목만들기

주요내용

동별 현안사항 발굴 및 사업공모를 통한 주도적 사업 수행

지원 갯수

14개

골목 만들기

골목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시범사업

주요내용

반경 500미터 내에서 자원조사 → 의제발굴 → 소규모 공론장 운영 → 실행방안 도출 → 축제형 결과공유회 등을 통해 골목의 문제를 공론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단위:천원)

8,000

지원 갯수

1개

골목 만들기

1인 가구를 위한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이웃관계망을 확장하고, 1인 가구의 관계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려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규모(단위:천원)

3,000 이내

지원 갯수

3개

공모사업 지원 절차

지원절차	내용
사업계획 수립·공고	•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마을상담	• 공모사업 신청자에 대한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 지원
제안서 접수	•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심사/선정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협약 / 보조금 교부	• 선정자 교육, 협약,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 공모사업 추진(주민) •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구청, 중간지원조직)
결과보고 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 • 행정과 주민 상호평가

2. 공모사업 지원 과정

2020 무지개 빛깔

권역별 아카데미

영등포구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2020 권역별 아카데미 '배우면서 놀자'는 영등포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 주듯 진행된 이 교육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원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참석자 거리두기로 모든 신청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았다.

전체 프로그램은

1) 공모사업 활동의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간단 영상 교육'
2) 공모사업 정산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필요한 엑셀교육'
3) 공모사업의 소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PPT를 활용한 웹자보 제작 교육' '무료 웹사이트를 활용한 웹자보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도 영상감독!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간단 영상교육'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지라 신청 마감도 가장 먼저였던 강의였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플을 사용해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사진을 모아 자막도 넣고 효과도 넣어가며 영상 감독으로 거듭난 참여자들은 쉬는 시간까지 영상 작업을 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조금은 서툴지만 저마다의 기록을 멋진 영상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었다, 공모사업의 다양한 활동이 영상물로 남아 다양한 곳에 홍보되길 기대해 본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엑셀이 답이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큰 기대감으로 교육장에 들어서는 참가자들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모사업 참여자들이 어려워 하는 지출집계표를 엑셀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강사가 참여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모습에는 자상함과 친절함이 묻어 있었고 그에 부응이라도 하듯 참여자 모두는 잘 이해하고 재미에 푹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이 교육을





통해 2020 공모사업 정산은 조금은 더 쉬워졌길 기대해본다.

안내, 홍보는 파워포인트로 할래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한 파워포인트 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정의로 참여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웹자보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내 자료나 홍보 자료를 제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초부터 재미있고 쉽게 이끌어갔다.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참여자들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마을사업 홍보는 우리가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본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미지를 만드는 무료 싸이트를 활용해 현수막을 만들고 홍보지까지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첨부하고, 음악까지 넣어 움직이는 웹자보를 보면서 참여자들 재미있어 하며 참여하였다.

웹자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해 본다.

삼삼오오 모여서 꿈꾸는 마을 공동체

2020 소규모 네트워크파티를 가다

영등포구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는 2020년 시구통합 공모사업과 이웃만들기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활동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마을의 정보를 소통하는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수그러들었던 때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역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 15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어느 장소에서나 파티의 시작은 처음 만나는 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벽을 깨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했다. 참여자들이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각자의 팀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이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통점과 연계할 지점을 가지며 서로 친해지고 있었다.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이웃을 알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영등포의 마을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파티는 마을 공간의 특성에 맞게 개성있는 활동을 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가장 먼저 신길 6동에 있는 향기나무 카페에서는 서로를 파악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마음지도 보드게임을 통해 행복이란 것은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에서 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보드 게임을 통해 서로 깊게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영등포동에 있는 큰언니네 부엌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다육이 화분을 만들며 서로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었다. 덩어리 흙을 빚어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진지하게 보였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 도자기를 빚었다.

양평동의 선유문화공방에서의 네트워크 파티는 양평동과 선유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애초에 양평동 일대의 마을 ·예술 공간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일 비가 내려 양평동 곳곳에 숨어있는 마을·예술 공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림동에 위치한 언니네 작은도서관에서도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나누며 다양한 사람들이 나로서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면서 네트워크파티를 마무리했다.


선유문화공방에서의 네트워크파티


큰언니네 부엌에서의 네트워크파티

양평 1동에 위치한 세바퀴에서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면 마스크를 함께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하였고 알록달록한 면 마스크를 만들면서 나눈 이야기는 더 알록달록한 색채가 묻어있었다.
한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팀 중 '청년 'ㅇ나 '1인 가구 'ㄹ 대상으로 하는 팀들이 총 4팀인데, 이들이 따로 만나서 네트워크파티를 가졌다. 청년들이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큰 모임이었다. 청년들이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로 마을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인 여의동, 문래동, 신길5동, 대림1동에서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파티를 진행하였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후의 활동을 연계하고 마을공동체가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20 소규모 네트워크파티는 '삼삼오오 모여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사업을 알리며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의 의도와 목적대로 참여자 모두 새롭게 형성된 관계망과 새로운 안목으로 사업 수행에 큰 힘을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마을 사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한 참가자의 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중간집합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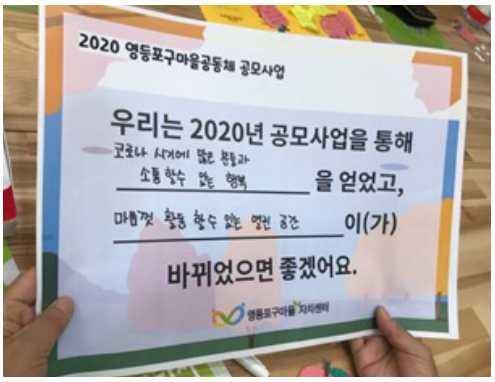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애초의 결심과는 다르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던 202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그러나 이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가 함께였기에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여서, 함께라서 가능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돌아본 자리! 바로 네트워크파티 자리였다.
202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네트워크 파티 '함께여서, 함께라서'는 코로나지만 우리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을 고민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총 8회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영등포구의 다양한 명소와 맛집을 공유하다보니 마스크를 쓴 모습 사이로 반달이 된 서로의 눈이 보였다.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과정에서 우리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공모사업을 알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 작성은 힘들었지만 함께 활동을 고민하는 이웃이 있어 행복했고, 공모사업을 통해 무엇보다 이웃들을 더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했다. 때론 공모사업 활동을 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속에 갈등도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열정과 활동하면서의 힐링도 있었다.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소소하게 이웃들과 소통하는 행복이 있었다.

202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직 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께 모였을 때 드리고 싶었던 단 한가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마을
자랑할지도


2020 네트워크교대
2020.10.26.(월)~10.30.(금)
함께여서,


2020 영등포구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우리는 2020년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과
소통할수 있는 행복
을 얻었고,
마음껏 활동할수 있는 열린 공간
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영등포구마을지원센터



3. 공모사업 소개

2020 영등포구 공모사업 리스트

연번	분야	모임(단체)명	제안사업명	사업실 행동
1	공동체모임활성화	지니행복마실	1세부터 100세까지 함께하는 책놀이	신길동 외
2		사랑나눔	골목길 사랑나눔 소통데이	양평1동
3		행복한 민들레	나, 너 그리고 우리 (옆동네 이웃만들기)	당산동 영등포동
4		늘나들이	당산골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당산1동
5		Y.A.P.Club (Yeouido Animal & People Club)	동물을 사랑하는 여의도인 커뮤니티 활성화	여의동
6		디.디.디(Daerim Daddy i Dream_ 대림동 아빠들의 아이들을 향한 꿈의 모임)	뚜비뚜바(아이들을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수 있게 도와주는 아빠들의 모임활동)	대림3동
7		달보드레	뚝딱, 뚝딱 마인 크래프트	영등포동
8		투게더	바통	신길동
9		다시 만난 세계	배우고 느끼는 역사여행	대림3동
10		자녀교육 토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도림동
11		영등포본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귀 프로젝트 "고사리" (고시원 남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영등포본동
12		도림동 재능나눔단	세가지맛 지식창고	도림동
13		별헤는 아낙네들	시(詩)익는 마을	신길3동
14		초품아(초등학생을 품은 아버지 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天·地·人 이야기	영등포동
15		부엉이	이야기가 있는 밥상	여의동

16	공동체모임활성화	민들레 홀씨되어	찾아가는 독거어르신 생일상 차리기	문래동
17		청정 이웃 (맑고 깨끗한 이웃)	청정이웃	신길7동
18		다문화부녀회	친정엄마의 밥상	대림2동
19		오순도순 나눔방	한땀 두땀 박음질	신길4동
20		함께하라	함께하라 우리 동네 건강지키미	대림2동
21		오나라 (오카리나 나라)	헬로우 오카리나 앙상블	전지역
22	우리마을해결사업	신4지구촌	골목길 환경개선 및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신길4동
23		신기리 별빛마을 추진단	늦은 밤에도 안심! 신기리 별빛마을 만들기	신길3동
24		여의동 자원봉사 연합회	신나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여의동
25		틈새 꽃밭	우리동에 틈새 꽃밭 가꾸기	신길6동
26		새목화	화통한 문래씨	문래동
27		큰언니네 부엌	울긋불긋 동네한바퀴	영등포동
28		청청백백	청춘별곡 in 영등포	문래동
29		꿈꾸는 엄마들	탈출제로 모두가 꿈꾸는 마을 시즌2	신길동, 도림동
30	이웃만들기사업	당일아띠	당산1동이 키우는 우리 아이들	당산1동
31		당산골 life	당산골 life	당산1동
32		당당(당신의 당산)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할 지도	당산2동
33		양평1동 아이사랑	양평1동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체험하기	양평1동
34		양평1동 문화나누미	양평1동 마을영화제 개최	양평1동
35		삼사모(신길3동을 사랑하는 모임)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하는 날	신길3동
36		차사랑 이웃들	차향 가득한 우리 동네	신길3동
37		신사모(신길3동 사람들 모임)	이웃과 나, 건강을 지키는 우리들	신길3동
38		사랑을 모아	사랑이 가득한 장미마을	도림동

39	이웃만들기사업	인싸	인문학으로 만나는 이웃	도림동
40		더불어 즐거운 날	도림동의 이웃과 우리들	도림동
41		이웃과 행복나눔	함께해요! 탁트인 행복	신길1동
42		여린	건강한 몸짱, 마음짱	신길1동
43		I 영등포 U	동화의 나라	신길4동
44		손맛쟁이	모여 모여 행복나눔	신길4동
45		뚝딱뚝딱	뚝딱뚝딱 만들어보자	신길5동
46		소행찾나 (소소한 행복 찾는 나)	이웃과 함께하는 핸드크래프트	신길6동
47		마을건강사업단	주민참여 건강한 마을만들기	대림1동
48		캐리커쳐 사랑방	캐리커쳐로 이웃 맺기	대림1동
49		영림 창작소	배움과 나눔의 조화	대림2동
50		한우리 놀이터	대림동 한우리 놀이터	대림2동
51		창까회	즐거운 "반상회" 만들기	대림3동
52		쓰리고	모이go 만들go 나누go	대림3동
53		I 영등포 U	러브하우스	대림3동
54		우성아파트 봉사단	이웃과 함께하는 대림3동	대림3동
55	1인 가구가 행복한 골목만들기	YDP CLUB	문래여지도	문래동 3가
56		양평1동 행복만들기	어르신과 어르신을 잇는 행복한 양평마을 만들기	양평1동
57		어쩌다 대림동	혼자지만 괜찮아_동네친구와 함께 하는 슬기로운 비혼생활	대림3동
58	골목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리빙랩 골목사업		우리 동네보육실험실"키큰나무숲"	대림3동
59	탁트인 골목만들기	영등포본동 새마을삼남매	날마다 더 새로운 우리 동네	영등포 본동
60		영등포동 주민자치 위원회	별빛 가득한 포동포동 마을 만들기	영등포동
61		당산2동 새마을부녀회	3가지유형의 쓰레기문제해결, 로고프로젝터 설치 사업	당산2동

62	탁트인 골목만들기	당산1동 통장연합회	당산골 문화의 거리 만들기	당산1동
63		도림동 자율방범대	도림동의 비밀을 찾아라!, "숨겨진 골목낙서장"	도림동
64		양평1동 통장연합회	양평1동 친환경 골목만들기	양평1동
65		양평2동 자원봉사연합회	탁트인 선유골목 만들기(ver 2.0)	양평2동
66		신길1동 자율방범대	담배꽁초 없는 골목 만들기	신길1동
67		신길5동 주민자치회	아이들이 꿈꾸는 무지개빛 골목길	신길5동
68		신길6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안전골목길 만들기	신길6동
69		탁트인 우리 동네 골목대장 추진단	탁트인 우리 동네 골목대장	신길7동
70		대림제1동 주민자치회	대림1동에 흥부가 떴다!	대림1동
71		씨케이여성위원회	大林 보행환경 개선 및 탁트인 골목만들기	대림2동
72		탁구대 추진위원회	탁트인 영등포구 대림동 만들기	대림3동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1세부터 100세 까지 함께하는 책놀이

모임명

지니행복마실

제안배경

책놀이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모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놀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을활동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활동내용

- 아동 대상의 책놀이 활동 연구와 교육
- 아동과 어르신들과 책놀이를 매개로 관계 형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마을공동체'라는 의미를 이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함께 모여서 어려운 부분은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이 어서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업이 끝나도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상숙 : 같이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전선옥 : 혼자였으면 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골목길 사랑나눔 소통데이

모임명

사랑나눔

제안배경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웃과 만날 기회가 없어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골목길에서 간단한 음식과 만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자유롭게 이웃과 즐기고 안부를 묻고 관계맺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동네 공원에서 이웃과의 음식나눔과 만남을 통해 소통의 계기 마련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활동하면서 혼자 사시는 치매 할머니께서 아기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뵈며 음식을 나눠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반가워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서로 위기가 되어 줄 수 있음을 느낀 순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에 모이면 못 보던 친구들을 만나면 '안 죽고 살아있었네' 하시며 너무 반가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을사업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어서 서운했지만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리며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웃 간 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윤정옥 : 이런 상황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과 함께 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나,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숙자 : 도움을 줄 수 있고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니 오고 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신현정 : 마을공동체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생도 했으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나, 너 그리고 우리 (옆동네 이웃만들기)

모임명

행복한 민들레

제안배경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소통할 줄 아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탐방, 도자기 만들기와 전시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유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자립심과 자신감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양평 꿈의 학교와 연계하여 양평 생태, 숲 체험 등 이웃마을 탐방
-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통해 흙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 아이들과 함께 하는 되살림장터를 통해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이웃과 함께 진행한 활동 돌아보기와 관계형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언제나 사업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꼭 빠지지 않는 매년하는 되살림장터가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왔을때 부모님들과 함께 농촌체험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활동하여 뿌듯했고 나온김에 영종도 바닷가까지 들려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었네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업을 하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소극적이였던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활기를 띄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심연주 : 매년, 공모사업을 하면서 계획하고 활동하면서 정산할 땐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다가 또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우리들을 보고 ㅎㅎ 역시 사업을 하는 그 맛이 그만 둘 수 없는 묘한 맛을 느낍니다.

김은석 : 요즘 같은 시대엔 아이들의 왕래도 부모님들의 소통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꾸준한 모임과 활동으로 내 아이에서 우리아이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까지 연결이되며 육아스트레스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당산골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모임명

늘나들이

제안배경

마을 도서관을 마을의 주민들과 아이들의 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하는 명예도서관장 모임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을 고민하고 좋은 사례의 마을책방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마을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퀼트, 비누 만들기 활동
-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을 통한 북콘서트 운영
- 책방 탐방을 통해 활동 방향성 고민과 회원 간의 관계형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주민이 하나 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 했으나, 다 기일 안에 못하고 차후로 미루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퀼트 공예를 하는 동안 친목을 도모하고 가방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어 이웃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 영등포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장홍순 :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어 활력도 생기고 삶의 즐거움도 더해졌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동물을 사랑하는 여의도인 커뮤니티 활성화



모임명

Y.A.P.Club(Yeouido Animal & People Club)

제안배경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교류와 정기적 모임,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여의도 인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활동 활성화를 통해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반려동물 생활교육,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매너교육, 유기동물 구조교육 등
- 여의도 일대의 동물 급식소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구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2020 영등포마을자치 축제에서 진행된 활동 소개 동영상 촬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시민의식의 변화(도시 공존), 주인의식(참여,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한현웅 : 많은 냥(고양이)들이 평화로워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송선옥 :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뚜비뚜바

아이들을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빠들의 모임활동

모임명

디.디.디(Daerim Daddy i Dream_대림동 아빠들의 아이들을 향한 꿈의 모임)

제안배경

대림동 아빠들이 모여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아빠들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육아와 보육의 문제를 한 가정을 넘어 주민네트워크가 함께 해결하고, 대림동에서 시작한 아빠들의 모임을 영등포 전역으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함께 활동할 아빠들을 모으고 만나는 봄나들이를 통해 관계강화
-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1박 2일 파자마 파티를 통해 깊은 관계 맺기
- 1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아빠와의 캠핑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동네 아빠들이 각자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고 있지만 실천 못한 일들과 내 주변의 아빠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고민을 같이하면서 나도 아빠로 배우고 성장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을때와 아빠와 아이들이 펜션 캠핑때 같이 뛰어 놀고 함께 시간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동네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고 지금은 같이 공모사업으로 만났던 아이들은 길에서도 인사를 나누게되고 아빠들도 같이 그런사이가 된것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의 다른 가정 아이들도 알게 되고 마을을 오며가며 서로 인사하며 이웃사촌이 됨.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소원했던 마을 주민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차광민 : 앞으로도 아빠와 아이들의 거리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공모사업이 늘었으면 합니다.

성용석 : 아이들 육아에 소홀한 아빠들을 위해 더욱 더 이 모임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뚝딱, 뚝딱 마인 크래프트

모임명

달보드레

제안배경

청소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목공수업을 매개로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들을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마인크래프트 이론과 카빙, 구조별 박스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힐링과 자연환경에 대한 논의
- 전시와 플리마켓을 통해 나눔을 실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줌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및 수업
- 코로나로 인해 줌수업하던 첫날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하는 사람과의 친밀감이 사업의 흐름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한 해의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함과 마을에서 품앗이가 가능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관심사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친해지면서 고민도 나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다른 마을사업을 할 수 있을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강미선 : 마을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임이란 : 코로나로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운점이 많았으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대표제안자들의 노력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된 점이 기쁘고 서류작업이나 보조금시스템이 좀 더 간편하게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김태임 : 코로나19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다행입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바통

모임명

투게더

제안배경

초등생부터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아빠, 비장애 형제 자매도 함께 활동하며 가족의 유대 관계 개선,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싶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용

- 남산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와 체육대회 진행하여 결속력 강화
- 원예테라피와 푸드테라피,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 에너지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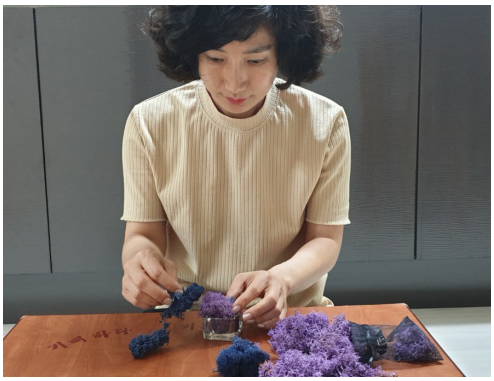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계획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참여한 분들이 좋아하실 때 가장 의미 있었어요.
만나지 못했어도 화분 받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동체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의논 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의 다른 활동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소수로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연락을 자주하고 친밀해졌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혜진 : 역시 올해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활동을 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하려는 마음도 위축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정란 :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다른 대표제안자께 감사드려요.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이 활동을 계속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유희 : 코로나로 인해 모임의 제약이 많아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배우고 느끼는 역사여행

모임명

다시 만난 세계

제안배경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엄마들의 모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를 암기과목으로만 배웠던 아쉬움을 해소하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 역사의 의미를 되살리고, 아이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나누는 활동을 마을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활동내용

- 역사 강연과 역사 관련 소설 읽기, 역사 영화보기를 통해 우리 현대사 배우기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역사 놀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 높이기
- 역사 기행을 통해 역사를 보다 가까이 느끼고, 역사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19로 계획했던 일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의기소침 했었는데, 그래도 소규모이지만 아이들과 모여 '역사놀이'를 진행했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외부활동을 많이 못하는 요즘이라 이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요즘, 이렇게나마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 활동하는 엄마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사업 덕분에 새로운 장소에서 전반적인 우리 사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도 있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열린 마을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함송화 : 마을 활동은 모두가 한 뼘 더 행복해지는 길을 닦는 일이다!

박숙영 : 다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업을 빠짐없이 참여도 하고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조선희 : 우리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며, 역사를 바르게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모임명

자녀교육 토론

제안배경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웃과 왕래가 줄어들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TV나 SNS, 게임 등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을 접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신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월1회 부모, 아이들이 함께 세계 요리의 유래조사, 요리 만들기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 간접 체험
- 월1회 영화감상과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으로 이웃과 소통
- 마을에 대한 애정을 높이고자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실천하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마을 활동에 참석한 아이들이 토요일이 기다려 진다고 하는 소감을 들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고, 우리의 활동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모르고 지냈던 주위의 가까운 부모님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고민을 함께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한용남 :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토요일을 기다린다는 말이 큰 힘이 되고, 끝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GAO HAILAN : 처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여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HIBINO MASARU : 주말이 되면 아이와 같이 무엇을 할까? 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고 더 다양하게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사회복귀 프로젝트 '고사리' (고시원 남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모임명

영등포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안배경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장년 독거 남성들에게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자아 존중감 회복을 통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당당하게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활동내용

- 텃밭 계절 작물 재배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작물을 이용하여 식사와 밑반찬을 취약계층 연계 나눔
- 문화활동을 통해 관계망 강화와 확대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함께 씨앗뿌리고 가꾸고 수확하여 나누고 반찬 만드는 일
- 함께 문화활동(영화 보고 지역 탐방)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 형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사리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밝아진 모습, 다른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천향연 : 함께 함으로 관계 형성과 소통의 장이 되어 좋았습니다.

전선옥 :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세가지맛 지식창고

모임명

도림동 재능나눔단

제안배경

이웃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많은 이웃들과 함께 총 세가지의 주제(편의성, 공공성, 다양성)를 가지고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주변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마을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주부들을 대상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살림 비법을 전수하고 공유
- 자연보호, 청렴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주민과 함께 모여 토론하고 생각하는 모임 운영
- 다문화가정 등 이웃과 친해질 수 있도록 스킨, 디퓨저만들기 등 재밌는 재능 공유 활동을 통해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공유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새로운 이웃과 여러 가지 만들기와 강의가 모두 기억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의 이웃을 알고 서로 인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영민 : 새롭게 이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몰랐던 내용 만들기 등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정숙 :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친목도 다지고 청렴팔찌, 환경 에코백꾸미기 등등.. 만들기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옥희 : 동네 이웃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울러 환경에코백꾸미기, 다육이 심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시(詩) 익는 마을

모임명

별헤는 아낙네들

제안배경

우리 동의 골목길 담장을 따라 있는 작은 시화갤러리를 활성화하여 우리 이웃들이 더 쉽게 시를 접하고 지루하던 일상에 싱그러운 에너지를 얻고 시가 익는 마을, 시로 행복한 신길3동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시를 통해 힐링하는 방법,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시 짓기, 이웃과 함께하는 시낭독회 등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 높이기
- 주민참여를 통한 시화작품 수집 및 기존 노후된 시화갤러리 새단장으로 일상의 작은 쉼터 조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새롭게 단장한 시화갤러리를 주민들과 함께 라운딩 할 때 참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작은 노력으로 마을이 한층 더 생동감 넘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행복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낯선 이웃과의 소통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작은 모임 덕분에 새로운 이웃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소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나은경 : 이웃과 함께, 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김혜란 : 강사님을 비롯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박지혜 :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노희정 : 아무도 관심 없는 골목길에 시심(詩心)을 심는다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아빠와 함께하는 天·地·人 이야기

모임명

초품아(초등학생을 품은 아버지 모임)

제안배경

보육의 보조자 역할이던 아버지들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녀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건강한 모임을 통하여 이웃 간의 관계도 맺고 공동체 의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아이들이 1박2일 여행을 통해 자연과 천체 체험하고 시야를 넓히기
- 도예, 목공, 과실수확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 간의 관계형성과 성취감 높이기
- 공동체모임을 통한 마음이야기를 그림 및 글로 표현하여 도서 제작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어린이 천문대 체험활동에서 남편과 아이가 별을 보며 너무 즐거워한 모습이 가장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다음 모임 언제냐고 자주 물어보고, 사실 아이들 때문에 모였는데 어른들이 7~8시간 이야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워킹맘이자 육아까지 지쳐 있었는데 마을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동네를 바라보고 배우며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적극 이용해 보아서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한옥경 : 내년에도 필참할 테니 꼭 해주세요.

이상민 : 딸에게 칭찬받았어요.

박은수 : 내년에도 서은아빠 부탁해요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이야기가 있는 밥상



모임명

부엉이

제안배경

내가 사는 여의도동을 둘러보고 영등포도 다녀보지 못한 곳을 둘러보며 '여의도 공동체'와 '영등포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등포 공동체를 위한 사회 기여와 이를 위한 사회공공 교육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여의도를 중심으로 우리 마을을 탐방하기
-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찾아낸 사진으로 엮어낸'나의 인생이야기 사진첩'만들기
- 영화를 보며 여성들이 행복한 영등포 공동체가 되기 위한 사회공공교육 고민하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쉬엄쉬엄 사업을 통해 힐링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과 실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서민순 :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혜경 : 이웃을 만나 행복했고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의 공익 활동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찾아가는 독거어르신 생일상 차리기



모임명

민들레 홀씨되어

제안배경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외로움을 달래주며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독거어르신들과 생신상차리기를 통해 기쁨과 추억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홀로 생신을 맞이하는 독거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생신상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독거 어르신댁에 생일상을 차려서 방문했는데, 어르신께서 내가 뭐라고 이런 상을 주느냐며 울먹이시기도 하고, 60년 만에 처음 생일상을 받는다는 분, 40년 만에 받는다는 분 등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고 문밖까지 내려와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문래동 자원봉사 회원님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며 도와주시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금순: 준비 과정은 힘들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찬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청정 이웃

모임명

맑고 깨끗한 청정 이웃

제안배경

지역공동체에서 사회변화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 녹지환경이 부족한 도심에서의 실내 정원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환경과 환경개선에 대한 선진의식을 기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이웃들과 함께 공기 정화식물의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정원활동 준비
-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동네의 나무를 알고 배우면서 이름을 붙혀주고 환경 지킴 홍보
- 모종 키우기 비법 내용과 함께 나눔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많은 소통은 못했지만 집에서 잘 키우지 못한 화분에 대한 서로의 경험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에게 필요한 양분들, 필요한 조건들을 배우면서 환경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웃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길영자 :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이때에 반려식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민정 : 실내에서 몇 개의 화분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승민 : 식물이 좋아하는 물, 바람, 햇빛 등 환경에 관심을 갖고 배울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친정엄마의 밥상

모임명

다문화 부녀회

제안배경

대림동에는 결혼해서 이주해온 다문화여성 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서로 이야기도 듣고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과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활동내용

-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실내놀이를 통해 서로 관계맺기
-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문화 인권에 관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책 강의
- 엄마와 함께 하는 나들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친정 엄마의 밥상" 제목과 같이 엄마의 손맛을 살려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서 먹게 되어 아쉬웠다. (기대했었는데 엄마들의 아쉬워하는 말)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엄마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다니다 보니 단독으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니 집에서만 부딪히던 아이가 완전 달라져 행복해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영숙 :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엄마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남편 흉도 보고 애들 정보도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수이리징 : 이웃간에 더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 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한땀 두땀 박음질

모임명

오순도순 나눔방

제안배경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물건 중 재봉틀을 활용하여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관심 있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이웃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재봉틀 재능기부를 통해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 만들어보기
- 재봉틀 활용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이웃을 초대하여 작품 전시회 운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마을 사업을 하면서 모르는 이웃분들을 만나 소통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친근감을 갖게 되어 서로 만나면 친형제사이처럼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최지혜 : 재봉틀을 배우는 데 조금 무서움이 있었는데 배워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김미자 : 기능을 기부하면서 열정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웃분들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종분 : 재봉틀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정은 : 30년 만에 작품을 만들고 나니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함께하라 우리 동네 건강지키미



모임명

함께하라

제안배경

주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강좌와 체험활동을 통해 주민의 보건의식 확대와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음이 풍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보건 교육을 시행한다.
- 지역주민 만들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작품만들며 관계맺기
-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축제 운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보건강좌를 통해 혈압, 당료에 대한 기초 지식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좋아해서 의미 있었던 강좌였던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 알게 되고 커뮤니티 형성과 유익한 강좌를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교양 수준이 향상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은아 : 마을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고, 강좌를 통한 학습과 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람 되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

헬로 오카리나 앙상블



모임명

오나라(오카리나 나라)

제안배경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다양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오카리나 배우고,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버스킹, 작은 음악회 진행
- 동네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악기 공연 진행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 나아지면서 공원이나 오산리 교회에서 연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또는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유정미 : 마을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되어 더 행복했습니다.

선유덕 :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봉사도 해서 넘 좋았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해결사업

골목길 환경개선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모임명

신4지구촌

제안배경

어두운 골목길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벽화를 그리고 거리 화합 화분을 설치하여 관리인을 지정하고 기초질서(길거리금연, 무단투기 예방등)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중국어 병기 현수막, 피켓을 만들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 어두운 골목길을 화사하게 바꾸어 밝은 동네이미지 조성하기 위한 벽화 그리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벽화를 밑그림부터 함께 그려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우리도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배정받은 길이 처음에는 담배 꽁초 쓰레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엄청 깨끗해졌고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심연옥 : 한국에 와서 봉사한다는 것이 옆에서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시작하길 잘했구나 싶습니다.

박금옥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며 시작했는데 활동하면서 얻은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 내가 활동하면서 바뀌었다는 것. 한국에 와서도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 옥 : 봉사하러 다닐 수 있다는 뿌듯함이 제일 좋은 일인데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니 주민분들도 따라서 담배꽁초랑 쓰레기를 적게 버려 봉사활동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해결사업

늦은 밤에도 안심!
신기리 별빛마을 만들기

모임명

신기리 별빛마을 추진단

제안배경

좁고 오래된 골목이 많은 동네를 주민의 힘을 모아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 동네공간을 활용한 골목축제와 동네 추억만들기를 통해 주택가 이웃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을 위해 담장채색 및 미니태양광 설치
- 동네 미니공원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골목길 영화제 운영
- 골목 환경 정리를 위한 캠페인 실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오래된 담장이 주민들의 참여로 환하게 밝아진 것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골목이 아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골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주차 갈등, 쓰레기 문제 등 골목에 관심을 가지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시작입니다. 관심이 모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언젠가는 꼬인 문제들이 하나 하나 풀리고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장관수 : 우리 골목이 더 환해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정자 :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상수 : 골목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주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해결사업

신나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모임명

여의동 자원봉사연합회

제안배경

여의동은 아이들의 놀거리가 부족하며 통학시 각종 환경 위해 요소들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민 주도로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공원 등 주요 공개공지에 놀이판 설치와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 제공
-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 통학로 보행권 보장을 위한 노란 발자국 설치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바닥 놀이판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코로나로 그간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아이들에게 일상 속 휴식 및 놀이장소를 제공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공원을 찾는 어르신들도 놀이판을 이용하시며 추억이 떠오르는 힐링 공간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을 때에 전 세대의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신나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안전한 놀거리 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이번 활동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이 이번 활동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문경숙 :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봉사였습니다.

이연호 : 뚝딱뚝딱 고무망치를 두드려서 변신된 우리 동네를 보며 보람이 큽니다.

장심형 :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해 아름다운 여의동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해결사업

우리 동네 틈새 꽃밭



모임명

틈새 꽃밭

제안배경

집집마다 집 앞에 화분을 놓아두고, 봄이 되면 각자 가지고 있던 씨앗을 뿌리며 집집마다의 꽃이 생겨나고 동네 어르신들이 오고가며 꽃씨와 모종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틈새꽃밭에 버려지는 쓰레기 방지를 위한 조명설치와 화분 설치
- 화분을 분양받은 주민이 직접 화분을 관리하고 가꾸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꽃씨, 알뿌리 나누기 할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동네 주민분들과 소통 그리고 나눔 입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최문정 : 틈새 꽃밭 골목이 늘고 있어 너무도 예쁜 동네가 되었어요.

정은선 : 어르신들의 소통과 소일거리들이 생겨서 좋아요.

조은상 : 이웃과 서로 인사하고 교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아요. 골목에 언성 높아진 일이 올해는 한번도 없네요.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해결사업

화통한 문래씨



모임명

새목화

제안배경

문래동이 최근 맛집, 데이트 명소 등으로 유명해져 방문객이 늘어났지만 덩달아 쓰레기도 쌓여가고 있어 문래동 상징인 목화를 활용하여 걷고 싶은 마을 거리를 직접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무단투기가 빈번한 시간대인 휴일 오전과 저녁에 골목 순찰활동, 홍보
- 음식점주와 연계하여 목화화분을 분양하고 원하는 장소에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일을 할 때는 힘이 들고 했지만 기억에 남은 것은 외국인이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이전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 거리도 깨끗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밝고, 웃으며 걸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국중복 : 시작은 힘들었지만 일을 다 해놓고 보니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 해결사업

울긋불긋 동네한바퀴

모임명

큰언니네 부엌

제안배경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네의 공원을 좀 더 많이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상자 텃밭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먹거리를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 수 있는 기회 제공
- 마을에서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이웃과 만나면서 우리 마을 탐방
-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체험이 있는 전시회와 벼룩시장, 소소한 공연장 운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꾸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 우리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있구나' 라는 느낀 순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을 다니면서 인사하며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어디서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혜경 : 마을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박금란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정명숙 :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 해결사업

청춘별곡 in 영등포

모임명

청청백백

제안배경

청년이 겪는 가장 사소한 일상의 주제를 매개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사업의 모든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모아 한 곡의 노래에 담고 영등포 청년들에게 공동체성과 건강한 자아상을 돌려주고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홀로 자취하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자취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 나누기
-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막극을 선정하고 취준생 청년들을 모아 극낭독회 진행
- 영등포가 생활권인 청년 혹은 영등포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무료 오픈콘서트 진행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올해 가장 많이 웃었다.', '청춘별곡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즌2도 꼭 하자. 나도 함께 하겠다' 참가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생각보다 많는 유익들과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참가한 청년들 모두가 느낀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물리적 인프라나 양적 지원이 없더라도, 청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서로 들어주고 격





려하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 것 만으로도, 청년들은 자신감을 얻고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들을 내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동현 : 정말 빡세고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추창성 : 또래 청년들을 조금 더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지영 : 연극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구통합공모사업 / 우리마을 해결사업

탈출제로 모두가 꿈꾸는 마을 시즌2

모임명

꿈꾸는 엄마들

제안배경

마을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던 엄마들을 마을 밖으로 불러내고, 마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려고 합니다.

활동내용

- 독서·공예·창의수업을 진행하고 방과후 아이들을 위한 오픈형 안심 공간 운영
- 골목길 놀이와 골목축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골목길 게릴라 봉사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밝은 골목길 조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처음엔 쉬워 보였으나, 꼼꼼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늦은 시간 까지 참여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본인들이 직접 그려서 더욱 애착이 간다며, 그곳에서 사진 찍으며 흐뭇해 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자기의 소속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고 청소만 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가장 눈에 띄면서도 가장 음침하기만 했던 곳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청소도 하고, 벽화도 그리다보니 내가 청소한 골목, 내가 그린 벽화 그리고, 우리 골목과 동네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동, 함께, 어울림이란 단어로 변화됨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하다보니 아이들끼리, 부모들끼리 소통이 더 많아졌고, 내가 사는 곳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박정연 : 나가 아닌 우리, 내 동네가 아닌 우리 동네, 나의 조국이 아닌, 우리 조국(祖國] 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이인경 : 앞으로도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지금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과 환경을 대하는 자세와 주변 사람들을 살피줄 아는 마음을 가르친다면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당산1동이 키우는 우리 아이들

모임명

당일아띠

제안배경

어린이집-가정-지역사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동참하며, 가족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끌어내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원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텃밭 채소를 수확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
- 교사와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 만들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든 제품들을 골목장터를 열어 지역사회에 기여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그 구성원 안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사랑의 도시락 : 아이들, 부모님들, 기관이 모여 1인 가구(홀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마음 도시락을 전달했던 순간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주민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동네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최효정 : 이웃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미연 : 지역을 생각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참여하는 분들과의 정보 공유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경윤 :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 너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우리 동네가 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당산골 life

모임명

당산골 life

제안배경

당산골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주민체험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밥상차리기를 진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행사
- 지역주민들과 친환경 천연도마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19시대에 몇 명이지만 모여서 레몬청을 만들기 위해 씻고 썰고 절이던 소소한 시간들, 그리고 받는 분들이 감사하게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좀 더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함께 하는 구성원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선숙 : 내가 사는 마을을 좀 더 주위 깊게 살피는 습관이 생김.

박미선 :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마을분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 즐기고 소통할 수 있어서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졌네요. 가끔은 이런 마을 모임이 있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그리며 기대해봅니다^^

김서연 :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시기에 이런 모임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즐거웠어요. 생전 처음 접해보는 도마 만들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르고 갈고 다듬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마음을 나만의 작품으로 위로 받아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할 지도

모임명

당당(당신의 당산)

제안배경

당산2동 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해당 구성원들 간의 연대의식을 생산하며,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될 지역기반 마을지도를 만들고자 한다.

활동내용

- 참여자들이 티코스터, 마크라메 화분 등을 상호학습 방식으로 배우고 공유
- 각자 집에서 준비한 먹거리를 가져와 포트락 파티 진행
-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동네의 주요한 장소를 찾고 마을의 지도 제작, 배포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당산동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가 팀원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모임 대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여성 1인 가구로서의 고충과 불안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고자 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2년 남짓 거주하면서조차 하나도 몰랐던 당산동의 지리와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떤 마을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하승민 : 예산편성 및 수정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팀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다보니 그나마 시간 여유있는 제가 재정 관리를 도맡아 진행했는데 매번 실수를 한가지씩 하여 팀원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 드네요.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양평1동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체험하기

모임명

양평1동 아이사랑

제안배경

양평1동 어린이들이 가까운 놀이터에 모여서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체험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갖고, 같이 나온 부모·조부모, 이웃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어린이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축제 개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키트를 받아가서 아이와 즐겁게 하루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글을 지역 커뮤니티에 작성해 주신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활동을 주로 하는 편이라 그런지 우리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어느정도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부모님들이 접하기에 또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에 용의한지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선민 :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할 수는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만 심심했었던 아이들이 키트로 인해서 하루동안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주셔서 뜻깊은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양평1동 마을 영화제 개최



모임명

양평1동 문화나누미

제안배경

양평1동은 노후주택 밀집 및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의 단절된 대화와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전 연령이 시청 가능한 영화를 선정하여 공원에서 달빛 영화제 개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 때 아이들이 다같이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보람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 활동이 어려워진 시기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윤보식 : 따뜻한 곳에서 다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김재무 : 다들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인수영 : 아이들이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하는 날



모임명

삼사모(신길3동을 사랑하는 모임)

제안배경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하는 날'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19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을 위해 무료로 창문 청소를 해드리면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아파트 베란다 청소와 주민 소규모 토론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창문을 가득 막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맑고 밝은 창문 청소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이웃과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웃의 공동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되었고, 서먹한 주변 환경에도 부드러움이 생기고, 이웃과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박일섭 : 이웃 만들기 사업이 있었기에 힘들기는 했어도 보람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홍재형 : 앞으로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송일남 : 한 명만 집중적으로 힘들게 일해서 미안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차향 가득한 우리 동네



모임명

차사랑 이웃들

제안배경

평소 자주 만나는 이웃들과 다양한 향과 맛과 멋이 있는 우리의 차에 대해 배우고, 직접 차를 우려 손님 대접하는 아름다운 차문화를 익혀 생활 속에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찻자리 주인과 손님의 찻자리 예절, 우리 옷과 절하는 법 등 생활다례 실습
- 찻상 차림과 전통다식 등을 만들어 찻자리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바쁜 일상속에서 좋은 이웃들과 만나 차와 커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어 뜻깊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접한 커피에서 차를 알게 되면서 집에서나 까페에서 차 마시는 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예절과 다도실습 배운대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도선옥 :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차향을 느낄 수 있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김수금 : 지인분들과 함께 차 예절과 다도 실습이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혜자 :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만남이 감사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이웃과 나, 건강을 지키는 우리들

모임명

신사모(신길3동 사람들 모임)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간의 소통의 단절된 이웃들이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손소독제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나누기
- 미술치유 작업을 통해 자기 내면 다스리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매 회기때마다 힐링이 되었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 본인들의 작품 만들면서 성취감과 마음에 힐링이 되어 좋았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을 만나서 우울감이 잠시나마 없어지고 서로서로 격려와 에너지를 나누면서 이웃 주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옥희 : 화분에 창작으로 그림 그리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을 어르신과 그림도 그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임순임 : 코로나19로 방콕하다가 화분에 그림 그리고, 로즈마리도 심고, 이웃분들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힐링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장금순 :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웃분들도 알고 지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사랑이 가득한 장미마을

모임명

사랑을 모아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미용 봉사, 마스크 만들기를 통해 서로 관계 맺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주민들과 함께 도림동을 상징하는 "장미"가 새겨진 면마스크 만들기
-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이미용 봉사를 통해 관계 맺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마스크 예쁘게 만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뿌듯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재봉틀을 사용했는데 힘들어도 마음이 뿌듯했고 같이 봉사하는 언니, 동생들이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한옥희 : 사랑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면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뿌듯하고 다시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뿌듯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김옥단 :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조경자 :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요!!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인문학으로 만나는 이웃

모임명

인싸

제안배경

마을 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들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철학에 대해 공유하여 올바른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성격을 통한 부모 코칭과 아이 인성 계발과 재미있는 인문학에 대한 학습
- 업사이클링을 통해 관계형성 및 소통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되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어르신들과의 만남
- 평생 학습의 기회 제공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기수경 : 이웃분들과 좋은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윤주연 : 여러 활동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지수 : 코로나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이 아쉽고, 내년에도 활동을 확대 운영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도림동의 이웃과 우리들



모임명

더불어 즐거운 날

제안배경

고추장을 매개로 장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즉석에서 만든 고추장을 이용하여 어르신은 장떡을 만들고, 제안자는 떡볶기, 소떡을 만들어 세대 교류하고 이웃과 나누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동사무소 직원들의 관심 및 참여, 제안자끼리 통합 교류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조민순 : 세대 통합으로 인해 나 같은 늙은이를 초대해 주어 고맙고, 고추장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함께 참여시켜 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윤옥 : 함께 하니까 좋고, 다음 기회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장화자 : 나이가 들면서 고추장 만들기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할 엄두가 안났는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었고, 옛날에 먹던 고추장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함께해요! 탁트인 행복



모임명

이웃과 행복나눔

제안배경

코로나로 홀로있는 어르신들에게 음식 나눔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음식만들어 어르신들과 나누고 관계맺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음식을 하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손이 잘 맞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주위의 어려운 분들께서 인사를 해주시고 활동하는 분들도 너무나 활기차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정은희 : 코로나로 인해 모임에 제한을 해도 서로가 참여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건강한 몸짱, 마음짱

모임명

여린

제안배경

소통이 단절된 이웃들이 함께 공통의 취미생활인 자전거 라이딩과 건강 돌봄을 통해 건강한 마음과 몸을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몸과 정신 증진을 위해 자전거 라이딩
- 고된 일상에서 마음의 힐링시간을 갖기 위해 문화생활
-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등 보건강좌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에 부푼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나를 되돌아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고숙경 :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성미 : 많은 사람들이 활동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숙 : 많은 참여를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동화의 나라

모임명

I 영등포 U

제안배경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친근한 동화로 벽화를 그리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일부를 벽화로 그리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눈팔지 않고 집중해 완성해 나가던 모습에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 하나만 잘 못 찍어도 속상해하고, 혹시 전체 작품을 망칠까봐 조심하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이 전에는 벽은 그냥 벽이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갔었지만, 주민의 자랑거리로 변한 모습을 보니 작은 힘이지만, 나의 손끝이 닿은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석구석에 관심이 가면서 앞으로 깨끗하고 예쁘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성우경 : 올해 처음 I ♥ 영등포 U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일사불란한 추진력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들을 보며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영등포에서는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 것이 福이라 생각합니다. 늘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멋진 발자국을 함께 내딛으면서 덕분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영등포구청에 감사드립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모여 모여 행복 나눔

모임명

손맛쟁이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웃들과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나누면서 이웃간에 돈독한 관계 형성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뚝딱뚝딱 만들어보자



모임명

뚝딱 뚝딱

제안배경

주민들간의 소통의 기회와 다양한 배움을 통해 이웃간에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이 화합하여 활기찬 동네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천연비누와 방향제 만들기를 통해 지역 환경오염을 막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 음식 배우고, 가까운 이웃, 소외계층과 음식나눔으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요리중에 김밥만들기
- 비누만들기
- 만두,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도 이웃만들기사업 모임을 가져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있던 내가 지인의 추천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수미 : 요리를 알지 못했던 나에게 요리에 자신감을 갖게해 준 이웃만들기 사업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정화 : 아이들과 함께 비누만들기를 할 수 있 기회가 주어져서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수연 :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만두를 함께하면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 만두를 또 아이들과 함께 빚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핸드크래프트

모임명

소행찾나(소소한 행복 찾는 나)

제안배경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재능 기부와 이웃과 공동체 참여활동을 함으로써 자아 성취감을 느끼며 이웃들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재능기부를 통해 디퓨저 만들기, 손뜨개와 자수를 배울 수 있는 엄마 모임 진행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온라인으로 작품을 공유하며 격려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평소 교류가 없었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지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못할 것 같았던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미영 : 모임이 어려웠던 기간 서로 작품을 통해 힐링 시간이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황현정 : 참여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덕분에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주민참여 건강한 마을만들기

모임명

마을건강사업단

제안배경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주민이 스스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함.

활동내용

- 주민행사 건강 부스 운영
- 건강 실천 프로그램(심폐소생술, 일일 걷기 실천)
- 건강 소모임 운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일상 속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안내드릴 때
-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하니 열심히 익히고 기간(1개월)동안 매일 연습해서 오실 때
-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건강실천을 열심히 따라 하시더니 마지막 강좌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던 모습
- 평소에 행사 등을 통해 뵙던 분이 아닌 새로운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점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발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추천, 소개하며 참석 독려, 정보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좋으면 지역 속에서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강갑주 :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왜 몰랐는지.

임혜정 : 계속 진행해 주면 좋겠다.

정미숙 : 기간이 짧고 예산이 적어 아쉬웠어요.

김비올 : 번거로운 점들이 개선되어 지속하면 좋겠어요.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캐리커쳐로 이웃 맺기



모임명

캐리커쳐 사랑방

제안배경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만들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보고자 함

활동내용

- 캐리커쳐 학습(기초과정, 심화과정)
- 마무리 전시 및 마을축제 전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캐리커쳐, 손수 그린 작품을 서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캐리커쳐를 그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는데, 가까이에서 하는 걸 보고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쉽게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임영모 : 지원을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쉬웠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배움과 나눔의 조화



모임명

영림 창작소

제안배경

초등학교 평생 교육을 통해 2년 동안 캘리그라피와 풍선아트를 배웠는데, 재능나눔을 하면서 배움과 실천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 더 많은 교육 활동을 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활동내용

- 떡케이크 만들기
- 라탄 공예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우울한 일상을 보내다 공모사업을 통해 이웃 주민과 만나면서 힐링도 하고 배움을 얻었다. 앙금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만들면서 일취월장하는 실력에 회원들 모두 기분좋게 수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 만든 떡케익을 소중히 가져가는 모습에 아이들이 공장작품을 집으로 가져가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주부, 엄마가 아닌 '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존감 상승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부여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최소영: 숨겨진 재능을 깨닫는 활동이었습니다.

손승미: 코로나 때문에 계획된 것보다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문희숙 : 새로운 기술과 흥미를 접하게 되었고, 동아리 회원들과도 더욱 협동심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대림동 한우리 놀이터



모임명

한우리 놀이터

제안배경

대림동은 내. 외국인의 비율이 비슷하며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없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모여 다양한 놀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소통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활동내용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소통의 계기 마련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포기할려 했는데. 참석하겠다는 분들의 문자에 힘입어 행사를 하게 되었지만 중간에 장소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주민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명수 : 행사의 목적 보다는 형식에 가까운 면이 아쉽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즐거운 "반상회" 만들기



모임명

창까회

제안배경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강좌를 열어 이웃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강좌 후 반상회를 통해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견 나눔과 동시에 이웃 간에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아이와 함께하는 반상회를 통해 자기소개 및 우리 마을에 바라는 점 나누기
- 안전을 고민하는 반상회를 통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일 의견나누기
- 정보를 나누는 반상회를 통해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 나누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아이와 부모, 이웃이 함께하는 놀이용품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한 멤버로 참여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주민분들 분위기가 오래전 좋았던 이웃사촌처럼 개선이 되었고,
서로간 얼굴을 마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조영오 : 이웃 간에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현주 : 회계처리는 간소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웃이 참 반가웠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모이GO 만들GO 나누GO



모임명

쓰리고

제안배경

우리 모임원들과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만든 결과물을 주위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줌으로써 모임원들 간 유대감 형성은 물론, 우리 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만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의 큰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이웃들과 취미 공유와 배움(수세미 만들기, 모자와 목도리 뜨기)
- 독거 어르신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마음전하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해서 서로 전화와 유튜브을 보고 샘플을 잡고 진행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나도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과 마음의 힐링을 얻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문해순 : 모자와 수세미 셋트를 전달해 드릴 때의 즐거움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수고했다 토닥토닥했습니다.

이연희 : 만나서 좋고 봉사활동도 같이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러브 하우스



모임명

I 영등포 U

제안배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의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활동내용

독거어르신, 다문화 가정의 거주환경 개선 활동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집수리를 마친 집을 처음 보신 어르신이 놀라워하며 환해진 표정을 보는 순간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같이 할 많은 사람들(공동체)이 많아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성우경 : 작은 힘이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미경 :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어요.

유재은 :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있는지 몰랐어요.

동단위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대림 3동

모임명

우성아파트 봉사단

제안배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활동내용

- 면마스크, 수세미 제작하며 나눔
- 독거노인 반찬 나눔
-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유대감 향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를 잘 몰랐었는데 마스크와 마스크 줄을 만들면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었고 더 돈독해졌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공모사업 활동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좋았던 사이가 친해지게 되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조분자 :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안영숙 : 만나는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수남 : 저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웃만들기를 하면서 언니, 동생들 만나는게 가장 행복했고 독거노인 봉사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영자 : 저는 마스크와 끈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가져다 준것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1인 가구가 행복한 골목만들기

문래여지도

모임명

YDP CLUB

제안배경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요즈음 혼자서도 우리 마을을 즐기고 서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대표명소, 역사현장, 맛집 등의 지도를 제작해 동네의 곳곳을 촬영하고 제작하여 우리 동네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1인 가구가 알면 좋을 동네의 대표 명소를 주 1회 탐방하고 소개 영상 촬영
- 브이로그 제작방법을 배우고 영상을 편집하여 1인 가구가 볼 수 있도록 제공





1인 가구가 행복한 골목만들기

어르신과 어르신을 잇는 행복한 양평마을 만들기

모임명

양평1동 행복만들기

제안배경

독거 어르신이 많은 양평1동의 특성으로 이웃 간에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마을활동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는 대상가 아닌 한 명의 주민으로 활동하고 다른 주민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장점인 장 담그기와 밑반찬을 만들고 레시피를 후배 세대에게 전수해주며 동네의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맺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후배 세대에 고추장 담그는 비법 전수
- 월 1회 밑반찬을 어르신들이 만들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친밀한 관계맺기





1인 가구가 행복한 골목만들기

혼자지만 괜찮아 동네친구와 함께 하는 슬기로운 비혼생활

모임명

어쩌다 대림동

제안배경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 낮시간에는 일하느라 마을에 있지 않는 비혼 1인 가구들은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거나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 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동네를 기반으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동네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마을에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활동내용

- 동네의 1인 가구를 찾고 영화를 매개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격월로 영화와 수다모임 진행
- 격월로 밑반찬 만들기와 명절음식 만들기
- 월1회 골목걷기 모임을 통해 동네 탐방하며 안전한 골목길이 되기 위한 지점 찾기
- 명절 가는 여행으로 더 깊은 관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 동네를 다니면서 밤길을 걸었던 것. 실제 가로등이 없어서 조금 무서웠던 점들이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비혼 여행을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 동네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 같이 무언가를 더 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희망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박미순 : 우연이 인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수련 : 1인 가구라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활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지아 : 비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골목활성화를 위한 소규모리빙랩 공모사업

우리 동네 보육실험실 “키큰나무숲”

제안배경

대림동은 학부모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조금만 여건이 되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육아와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골목의 보육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방과후 나홀로 아동을 비롯하여 유/초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골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보육, 교육 환경에 대한 마을자원조사를 위한 주민모집과 주민 인터뷰 진행
- 마을자원조사 결과 공유하고 도출된 의제를 주민들과 하는 공론장 운영
- 의제도출 및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골목 반상회 진행
- 마을자원조사와 공론장, 골목반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화합할 수 있는 골목축제 진행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 시기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10월 30일 영등포 대림동 원지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가 있는 골목을 진행했습니다. 공원에 모인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서 같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께 어울렸던 초가을의 공원의 풍경.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점.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점을 나누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하면서 고민과 우리의 역할이 확장되는 것.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조민욱 : 코로나로 계획한 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적은 인원이 모여서 더 알차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숙영 : 공모사업으로 일상에 힐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영은 : 마을주민들과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 행복한 교육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영등포본동

날마다 더 새로운 우리 동네

제안배경

낡고 노후화된 마을마당의 시설물과 경관을 개선하여 머물며 쉬고싶은 쾌적한 쉼터로 만들고 쓰레기 무단투기 유발요인을 해소하며, 이웃과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나와 내 이웃의 삶터인 골목생활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벤치와 데크, 담장, 운동기구 등을 도색하고 정비
-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화단, LED등 정비
- 골목 주인으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담배꽁초수거함 설치 및 골목반상회 개최 등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소공원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담한 돌담을 형형색색 수놓듯이 칠하는 활동 중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예쁘게 단장되었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작고 어두웠던 공원이 조명 교체, 돌담 채색, 화단 정비 등으로 밝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원에서만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인승구 : 정체된 마을 모습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동네를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경숙현 : 함께 모여 활동하는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노 : 더 쾌적한 영등포본동을 만들게 되어 사업 진행하는 동안 항상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신현이 : 알록달록 우리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영등포동

별빛 가득한 포동포동 마을 만들기

제안배경

밤에도 산책하고 싶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장터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클린 리더하우스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감소시켜 청결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아이와 엄마가 참여하여 아이들이 가고싶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 나눔장터 개최
- 클린 리더하우스 선정, 클린 활동 운영
- 담배꽁초 누적량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관리

탁트인 골목만들기

당산2동

3가지 유형의 쓰레기문제해결 로고젝터 설치 사업

제안배경

당산2동 관내 쓰레기로 문제가 되는 거점 몇 군데에 용도에 맞는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배출시간이 안 지켜지는 거점(배출시간 안내 프로젝터), 무단투기 상습거점(무단투기시 과태료 고지 프로젝터), 배출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투기 거점(배출장소가 아님을 알리는 프로젝터)를 문제 유형에 맞추어 설치, 운영

탁트인 골목만들기

당산1동

당산골 문화의 거리 만들기

제안배경

당산1동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골목길 활성화를 통하여 밝아지는 골목길을 만들고, 유해업소 압박으로 자진 폐업과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주민들이 참여하여 과일등 만들어 당산동 문화의 거리에 설치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내가 만든 과일등을 우리 동네 골목길에 설치를 하여, 문화의 거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고 뿌듯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이웃 주민들과 힘을 모아 사업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일등 거리를 걸을 때 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평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2019년 당산골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서는 마을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우리 주민의 손으로 마을이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당산골 주민체험장이 활성화 되면서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유해업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년과 다름을 느낍니다.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앞으로 당산골 문화의 거리가 더욱 밝아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선숙 : 동네 어두운 골목길을 직접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일등 만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길순 : 손재주가 없어 두려웠지만 설명을 너무나 쉽게 해주셔서 다들 어려움 없이 예쁜 과일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일등으로 밝아질 당산골 골목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소주 : 청과시장으로 유명한 당산동은 이제 과일등 설치로 한층 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어, 당산골 문화의 거리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도림동

도림동의 비밀을 찾아라! 숨겨진 골목낙서장

제안배경

도림동 골목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으로 변화되어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되고 포근하고 따뜻한 골목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지저분한 전봇대를 정리하고, 전봇대 위에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그림 및 글씨 작성
- 미끄럼 등 안전 취약계단 인근에 태양광을 활용한 솔라등 설치,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계단 조성
- 주민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골목에 대한 관심도 향상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주민재능기부와 연계한 '전봇대 힐링문구 공모전', '주민힐링 벽화수업'을 함께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 마련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셉티드(CPTED)기법 활용을 통해 칙칙한 골목을 밝고 화사하게 탈바꿈하여 취약골목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골목 속 숨겨진 힐링글귀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여, 주민들의 지친 하루의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는 동네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김덕수 : 자율방범대원, 골목에 관심 있는 주민이 모여 '골목비밀요원' 구성하여 함께 골목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너무 인상깊었습니다.

김판섭 : 연이은 태풍과 비로 인해 골목사업 일정 수차례 연기되어 걱정 많았는데, 주민 간 신속한 정보교환 및 소통을 통해 골목에 힐링 벽화를 완성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이춘희 :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공모전, 벽화수업을 진행하여 좋은 추억으로 기억된 것 같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양평1동

양평1동 친환경 골목만들기

제안배경

빌라 및 단독주택 및 밀집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통해 깨끗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배출된 쓰레기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제품들을 재활용하여 골목길 환경 디자인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골목주민들의 인식개선 활동
- EM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 제작과 환경정화 활동, 재활용품을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해 친환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사업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웃들을 만나 골목길 청소, EM용액제작 및 배부 활동 등을 함께하며 이웃 간 협동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EM용액을 나눠주며 많은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골목길 청소 및 동네 순찰 등을 통해 불법쓰레기 취약지역이 이전보다 깨끗해졌으며 배부받은 EM용액을 주민들이 스스로 악취제거활동에 사용하며 동네에 악취가 적어졌습니다.
EM용액 배부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안경란 :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 EM용액 나눔 등을 통해 소통도 하고 깨끗해지는 동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애자 : 다른 통장님들과의 소통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하며 화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만든 EM용액으로 골목을 청소한 후 깨끗해진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덕순 : 코로나19 및 여름철 장마 등 활동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으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EM 용액을 뿌려 벌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보람찼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양평2동

탁트인 선유골목만들기(ver 2.0)

제안배경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한 골목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탁트인 선유골목만들기 활성화로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직사각형 화단 설치·관리, 가게 앞에 담배 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 담배꽁초 무단 투기금지 스티커 제작, 물받이 철제 커버 설치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탁트인 선유골목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과 상인의 관심과 응원에 감동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소극적인 삶에 나 아닌 다른 이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나섰는데 마을 구석구석 다니며 친근함도 느끼고 내가 사는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라는 거창함이 아니라 나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임헌호 : 더 많은, 더 좋은, 더 나은 양평2동을 만들기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주민께 감사합니다.

김미경 : 마을 곳곳에서 노란스티커(담배꽁초를 버리지마세요)를 볼때마다 절로 미소짓게 됩니다.

김태성 : 탁트인 골목에 꽁초가 없어지는 마법이 봉사활동으로 이뤄진다는 감동과 함께 기쁨이 넘칩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신길1동

담배꽁초 없는 골목 만들기

제안배경

골목에 담배꽁초가 사라지는 실질적 모습을 골목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골목을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담배꽁초 없는 골목을 홍보하고 꽁초 휴지통 설치에 대한 골목 반상회 개최
- 담배꽁초 휴지통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빗물받이 담배 꽁초 청소
- 주민과 함께 담배꽁초 없는 골목 만들기 성과 공유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사업을 계획하면서 거창한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주변부터 살펴야 되겠다는 취지로 '담배꽁초없는 골목만들기'로 선정했고, 거리의 쓰레기 대부분은 담배꽁초인데, 이 지저분한 거리가 익숙해서인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미리 선정해 둔 장소에 공공재떨이를 설치 할 때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고, 이 시설물을 보는 우리 동민들이 새삼 담배꽁초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심각성과 탁트인 골목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대해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보행 중 무심코 투기하던 담배꽁초를 평소에 익혀둔 공공재떨이를 염두해 두어 휴대하다가 그곳에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물론 일부 취객들은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는 아쉽다. 이 시설물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함도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여겨진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방기원 : 도로에 버려진 담배꽁초보다 재떨이를 설치함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변하여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화근 : 담배를 피우고 여기저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보다 재떨이 설치 후 지정된 장소에 꽁초를 버려서 하수가 오염되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성관 :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구민들이 많은 데 지정된 장소에다 재떨이를 설치함으로 특히 여성분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신길5동

아이들이 꿈꾸는 무지개빛 골목길

제안배경

노후 옹벽의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하고, 학교 담장 갤러리는 조성과 골목길 로고젝터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생동감 있는 골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어둡고 외진 골목길에 로고젝터를 활용한 아트조명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 발자국 설치(비예산)
- 대영초등학교 담장 벽화 조성 및 희망의 바람개비 설치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완성된 벽화를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싹 날아가는 느낌"이라며 "주민들이 벽화를 보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곳을 매일 지나다니며 왠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벽화가 그려지고 나니 기분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단순히 조형시설물을 설치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계기로 마을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주민 모두가 마을의 경관자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옥명하 :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골목길을 단장하니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보람으로 벅차오릅니다. 지역사회를 가꾸는데 참여해 주신 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한숙 : 회색 빛의 삭막했던 공간을 환하게 바꿀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신길5동 주민의 불안 해소는 물론 마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진종 : 환해진 통행로를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시민참여단의 정성과 노력으로 마을 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신길6동

안전골목길 만들기

제안배경

골목길에 공용 소화기 설치와 횡단보도 대기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표시물을 설치하여 안전선을 쉽게 지키게 함으로써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골목길 20여 곳에 공용 소화기 설치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노란 발자국 표시물 설치



탁트인 골목만들기

신길7동

탁트인 우리 동네 골목대장

제안배경

벽화, 소화기, LED조명 등을 통해 범죄, 화재,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로 탈바꿈하고, 행정 경계(선)를 넘어 두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 손잡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벽화, 소화기, LED조명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
- 무단투기 계도 및 캠페인 활동, 동네 청소하기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

탁트인 골목만들기

대림1동

대림1동에 흥부가 떴다!

제안배경

아이들이 조롱박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연과 친숙해지고,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 등을 통해 골목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공원 내 조롱박터널을 어린이집에 분양하여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 클린하우스 청결관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정기·수시 순찰을 통한 무단투기 계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기존 우리 마을 내 잘 단장된 식물들을 보면서도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랑파기, 물주기 등의 조롱박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더불어 자연과 생명이 주는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끼리 서로 협동하며 서먹했던 사이가 점차 화기애애해짐에 따라 같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배출 안내 및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기존에 아무렇게나 내놓았던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게 되어 마을 골목이 깨끗해졌으며, 내 집 앞 쓰레기 배출이 이전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어 쾌적한 골목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장태정 : 공원과 주민센터, 어린이집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상징을 같이 공유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경숙 :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마을 활동에 임한 결과 발전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배현자 : 무럭무럭 자라나는 조롱박과 점차 깨끗해지는 마을 골목을 보면서,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이 정말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탁트인 골목만들기

대림2동

大林 보행환경 개선 및 탁트인 골목 만들기



제안배경

화단조성을 통하여 청결한 거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공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꽃나무 화단을 조성, 유지관리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보행환경 저해요소 제거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거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화단조성에 필요한 재료와 시멘트를 나르고, 꽃화분을 만드는 일이 힘들었지만, 회원들과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깨끗한 골목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더미였던 대림2동 골목이 장미꽃이 핀, 깨끗한 화단으로 재탄생하여, 악취 없고 깨끗한 아름다운 동네로 변신하였습니다. 지지 않는 꽃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꾸고, 깨끗한 동네로 더욱 더 변화되길 바라봅니다.

활동에 대한 한줄 소감

이미화 :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박명자 :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는 쭉~~계속 됩니다.

김예화 : 동네에 나의 손때가 묻어 정감이가고, 사업 참여한 것에 자긍심이 생겨요~

탁트인 골목만들기

대림3동

탁트인 영등포구 대림동 만들기

제안배경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골목을 만들어 주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무단 투기를 단속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화단조성, 로고젝터·재떨이 설치 등을 통해 탁트인 뚝방길 조성
- 대림역 일대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1~2회 활동



4. 함께 하는 사람들_마을지원활동가 인터뷰

늘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김철곤**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사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2018년 사회적 경제 청년 프로젝트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교육을 받고 올해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사업을 하는 팀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을 완료한 영림초 어머니팀이 있는데,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거리를 나누는 등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아보였습니다.

3Q.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을활동의 원동력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특별히 감동을 잘 모르고 살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인맥이 엄청나게 늘었고, 동네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라는 이름의 현수막만 보아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마을지원활동가를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히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지원했던 동기를 말하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가 제가 겪은 이런 고충들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마을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대간 이웃간 교류가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동네마다 엄마들이 모여서 마늘까는 방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 마을,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러 가서 자고 오기도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평등, 소통, 가치 실현을 꿈꾸다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배기남**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3년 공모사업이 영등포구에서 처음 시작되고 <영등포마을넷>이라는 주민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간헐적으로 참여하다가 본격적으로는 2014년 지금의 마을자치센터같은 초기모델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자생단)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새롭게 시도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고 문제의식도 많던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고 인식이 변화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죠.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형태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관계나 마을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Q3.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활동이란 살아 숨 쉬게 하고, 멈춰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활동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억압, 혐오를 제외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들이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것들이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공유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크고 작던 영향을 미치며 같이 나아가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이 필요해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평등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가 소통되는 지역 사회, 가치들이 실현되는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힘들이 많아지고 포괄적으로 커지는 과정 그 자체가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합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요!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윤미영**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 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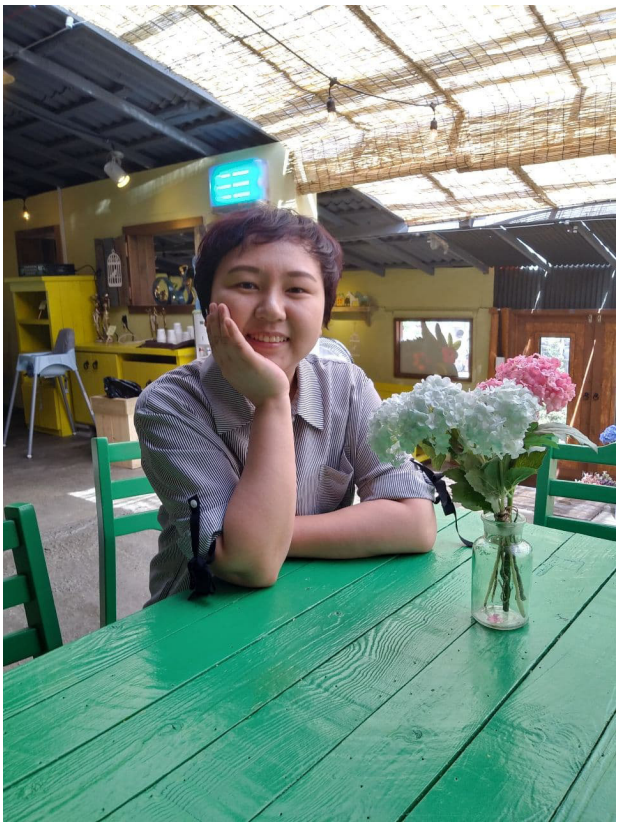
풀뿌리여성들을 조직하고 함께 성장하는 단체를 지향하는 서울여성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2006년부터 일을 했어요. 활동하면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고민을 하던 중 2012년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 마을상담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채용되었던 거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만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는데 활동의 상상력이나 연대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 상담이 기억에 제일 남아요. 영등포 작은 공간에 대한 상담이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설렘을 마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친해져서 한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상담을 잘 하려면 좋은 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I-Pad를 샀죠. 나름 거금 들여 구입했는데 막상 해보니 기계를 통한 상담은 필요 없어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결국 게임용으로 활동하게 된 것도 기억에 남네요. ㅎㅎ

Q3.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을지원활동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업지기들의 상황, 고민들까지도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을 상담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업지기들이 마을사업을 '나는 왜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마을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



확한 의미부여와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을 돕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가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다양한 시민 주체를 양성하고 발굴해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지원활동가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은 좋은 가치와 관계를 생산하는 공동체를 그 누구도 아닌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활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지향점과 가치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소통과 인권 감수성들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요즘은 '마을 안에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그 중 한 가지 요소는 지역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안에서 아이들을 대안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나아가고 싶어요.

글 |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기쁘고 쉽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경희**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의 입학과 함께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시작하여 독서명예교사, 학부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관계와 활동들이 단절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연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마을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소개와 권유로 시작하게 된 마을지원활동가 활동이 올해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와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어떤 활동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줄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마을활동을 하기 전에는 익명인 채로 있는 게 좋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활동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마을활동가가 되어서 영등포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가 나의 삶에서 소중하고 가까운 곳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어야겠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으쌰으쌰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활동가로 최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즐겁고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또 항상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쉬운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기 쉽고, 말 붙이기 쉽고, 함께 하기 쉬운 마을을 말합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로 문을 굳게 닫고 살아서 말 붙이기도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쉽게 접촉하고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마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마을,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안전하고 평등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명희**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림동에 있는 언니네 작은도서관에서 마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의 주부들을 만나서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더 넓은 영역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올해 마을지원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전에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으시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의 일도 더 잘 보이더라구요^^

또 마을활동에 참여를 못 하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권유해드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된 이후에 삶의 희열을 느꼈다고 말하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마을활동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살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



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결국 마을활동은 내 삶에 있어서 자부심의 바탕입니다. 나의 생활 패턴이 마을활동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을 다 마을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영등포에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며 삽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을 지니고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 차별 요소, 즉 성,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평등한 존중을 하는 사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공동체적 삶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와 '차별'이 심해지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는 세상, 모두가 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작은 출발에서 시작되는 큰 힘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영미**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지원활동가는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에서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다가 학부모 활동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으니, 마을 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4년간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권유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를 권유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해서 저를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여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안의 활동은 그렇게 윈윈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올해 활동하시는 목공팀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어려움 속에서 진행을 잘 해서 좋았습니다. 이것을 사례로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센터의 강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5년에 영등포에 이사 와서 학교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육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

금도 누군가가 나서서 활동을 해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들을 나서서 변화시키려고 활동하는 것이 곧 마을활동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활동에 대한 보수에 관심을 갖지만 마을 안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정신과 희생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염두에 두고 덤빌 수는 없는 활동입니다.

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일수록 소규모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안에서 연대해 활동을 하다보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모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안에서 공론화를 거치며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이 곧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모두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을을 위해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종은**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의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되면서 공동체 활동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활동을 하며, 시구통합공모사업 등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마을지원활동가 교육을 받고 2020년에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섯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팀을 꼽으라면, 활동에 의욕이 아주 넘치시는 팀으로 아빠 모임인 '초품아(초등학생을 품은 아버지 모임)와 '당당(당신의 당산)'팀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당당팀은 같은 지역에 사는 1인 가구 모임이고, 아빠 모임팀은 아이들을 통해 유치원부터 시작된 모임입니다. 최근에는 '사과 따러 가는 아빠 모임'을 했습니다. 당일로 가기로 한 계획을 1박 2일로 변경하려고 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드려서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각 팀들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네의 일은 무엇이든지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몰랐던 일을 새로 알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지원활동가 활동을 하면서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등의 역할이 제 삶에서 또 다른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도 많지만 사람 만나는 공부, 마을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제 스스로의 발전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마을지원활동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답안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을지원활동가는 사업지기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만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치를 느끼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일반적이고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마을, 마음을 터놓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경륜과 능력을 존중하면서 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서로를 촉진해주는 아름다운 세상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화진**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강좌를 통해 알게 된 마을지원활동가와 다른 일들을 같이하며 알고 지내던 중에, 이 일을 매우 즐겁게 하시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에 마을지원활동가를 시작하는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만들기 사업에 참여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스스로가 나의 틀을 깨고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웃 만들기 사업의 한 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비 서류 등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점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팀인데 마무리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확대하여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담당 마을지원활동가로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을지원활동가만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촉진하는 역할의 퍼실리테이터와 마을지원활동가로서의 활동이 제 삶에서도 새로운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예전의 나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확장해나



갈 수 있는 일이 바로 마을지원활동가 인 것 같습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마을지원활동가는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분이 하시면 더욱 즐겁게 잘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을자치센터와 함께하는 마을지원활동가들 모두가 항상 지지와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활동할 의욕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우리는 지금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더 활기찬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의 이상적인 모습은 마을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는 실현 불가할지 몰라도 이런 모습을 꿈꾸며 노력해간다면, 그 모습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 마을 학교, 많은 것들이 마을 안에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세상, 그런 마을을 꿈꿉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공존을 꿈꾸며 활동해요!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전영기**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영등포가 공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세대공존, 다문화에 대한 공존, 개발에 대한 공존인데 이웃 만들기 사업을 작년에 진행하면서 마을지원활동가를 처음 만났었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네. 만났던 분들이 아직은 다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업에 고민이 많은 분들을 만나 희망, 용기와 함께 방향을 찾게 도와 드리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기억에 남는 팀은 '청정이웃'인데 식물을 키우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생각과 식물을 제대로 가꾸는 방법 등을 이웃과 나누는 소통의 모임입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어려움이 전혀 문제되질 않는 것을 이 팀을 통해 배웠습니다.

Q3.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소통의 창구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같이 찾아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결국 이끔이 같은 역할인데 마을공동체에 대해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끔이가 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권해요. 관심이 있다면 같이 부딪히며 배우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좋은 건데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하는 게 맞다 하더라구요.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처음에 말했듯이 공존을 꿈꾸는 마을입니다. 배척을 배제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을 같이 찾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결국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요.

글 |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마을활동하면서 꽃을 생각해요!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정소임**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몇 년 전에 이웃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지원활동가를 만났는데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마침 <독서줄탁>이라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마을지원활동가의 권유가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알아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설득력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줄탁이란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알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어미닭이 쪼아 깨뜨리는 것이에요.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장애가 있는 자녀들과 함께 운동회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팀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힘들어지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이웃만들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르는 것은 센터에 물어가며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소규모 모임을 권해 드렸죠. 나중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감싸주시는 거라 생각이 드니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름 정하는데 힘들어 하시다가 <소행나-소소한 행복을 찾는 나>란 멋진 이름을 탄생시킨 사업지기도 기억에 있습니다.



Q3.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을지원활동가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인데요. 마을지원활동가는 마을사업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관(官)에서 뿌리를 내리고 민(民)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마을지원활동가가 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중간역할인 거죠.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그마한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다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웃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배우면서 할 수 있어요.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을을 꿈꿉니다. 예전엔 이웃사촌이라 해서 서로 오고 가는 정을 쌓고 나누는 법도 배우며 어찌 보면 먼 친척보다 더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삭막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니고 무관심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생각은 넓게, 길을 열어 주는 일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조민욱**

Q1.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2년 영등포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언니네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다른 동네에 살다가 2014년 도서관이 있는 대림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마을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해서 2015년에 교육을 받고 2016년부터 마을지원활동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울타리에서 삶의 공간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오래 활동을 해서 기억에 남는 팀들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삶을 대하게 되었다는 분들을 만나면 특히 보람을 느낍니다. 활동하는 순간순간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누만들기 사업을 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트롯트 가수였다는 것을 어느 날 주민 센터에 현수막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마을 활동으로 만난 분인데 또 다른 방향으로도 연결되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마을활동가 분들과 프로젝트를 받아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활동하는 자체가 아주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Q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 또는 마을활동가의 일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활동이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는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역할, '날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요?

확산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생각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Q5. 어떤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세요?

몇 년 전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하는 날, 달리기에서 같이 뛸 수 없는 친구를 손잡고 함께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에서 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느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변화
참여
민주
희망
민주
주의
참여
변화
평화
보람
변화
배려
형평성
평화
개방성
관계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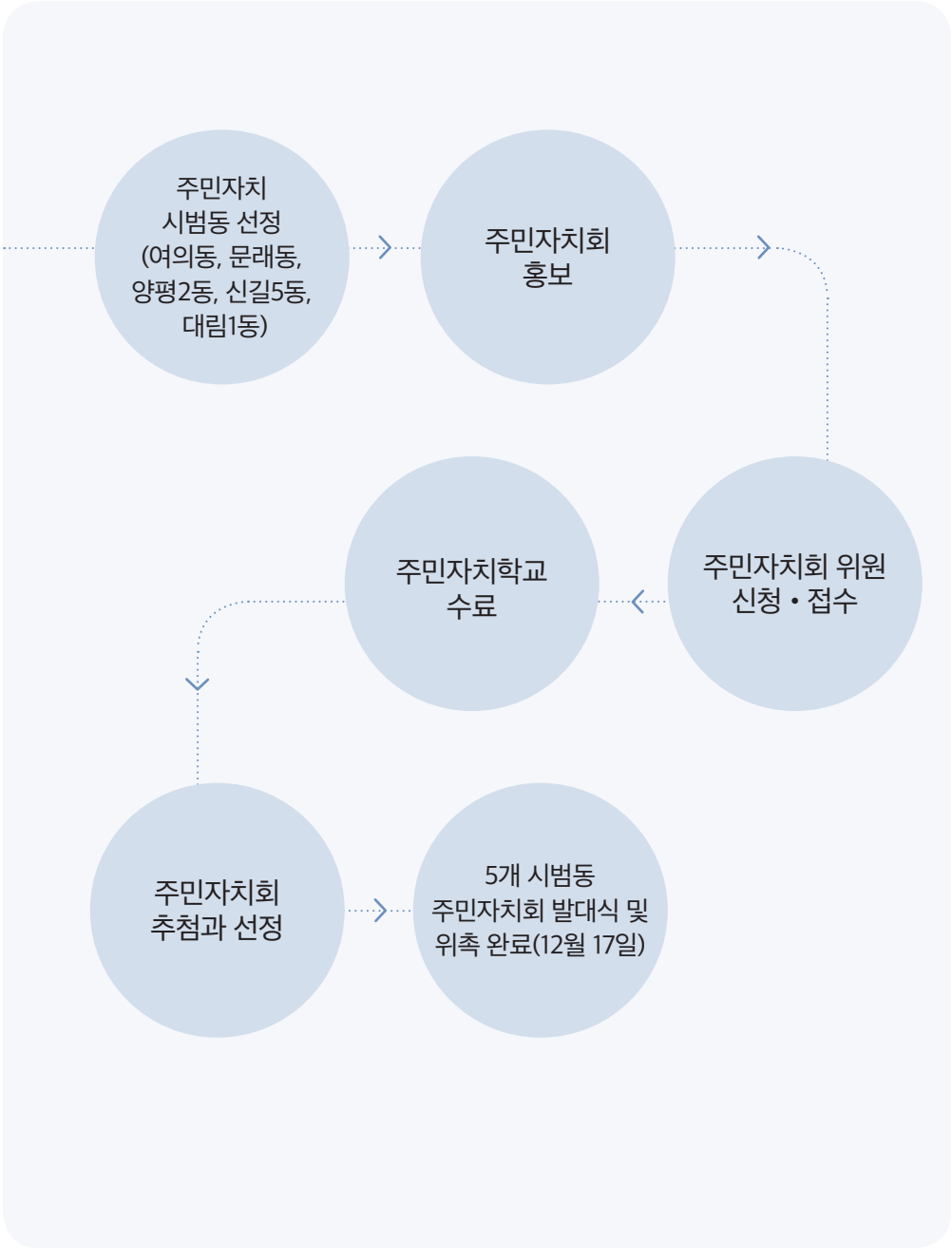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 과정

1.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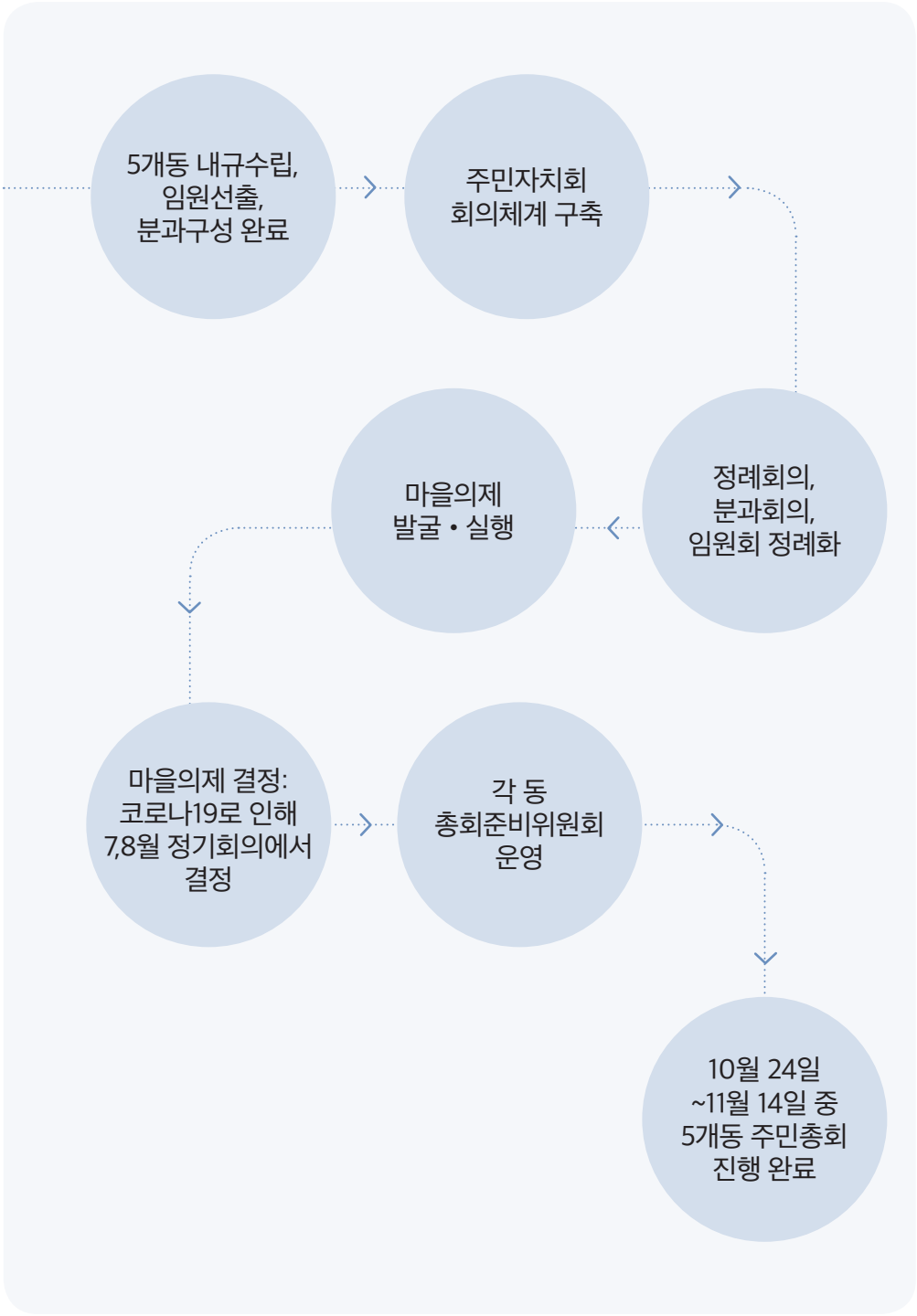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회 구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주민자치회 운영


5개동 내규수립,
임원선출,
분과구성 완료
주민자치회
회의체계 구축
정례회의,
분과회의,
임원회 정례화
마을의제
발굴 • 실행
마을의제 결정:
코로나19로 인해
7,8월 정기회의에서
결정
각 동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10월 24일
~11월 14일 중
5개동 주민총회
진행 완료

2.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소개

2021년 여의동 실행의제

실행분과	사업명	어떤 사업일까요?
교육	여의동의 상상 원탁	여의동 주민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여의동 현안의제 및 미래상을 도출하여 주민자치회 의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의동에서 놀고, 배우고, 꿈을 키워요	보육·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주민들이 모여 마을 안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세대들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듭니다.
너심환경	자전거 도로 활성화	주민들이 쾌적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감시단 활동을 실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걷고 싶은 여의동 만들기	여의도 거리 환경 관리를 통해 걷고 싶은 여의도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신명나는 문학	모두가 함께 만드는 I love 여의동	여의동에 맞는 캐릭터를 발굴하여 여의동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시니어라운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노인 친화적 모임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실현합니다.
	여의동 주민 체육대회 UP!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동 체육대회 행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여의동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합니다.
행복한 미디어	어울림 한마당	여의동 어르신들이 국악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합니다.
	너섬클럽 행복 테라피 여행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행복한 너섬 공동체를 만듭니다.
	함께 꿈을 켜다	장애 학생과 가족, 마을 주민이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너섬 청소년 마을 기록단	마을 청소년들이 미디어 제작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우리 여의도의 모습을 기록하여 남기는 활동을 합니다.

2021년 문래동 실행의제

실행분과	사업명	어떤 사업일까요?
교육홍보 분과	어린이 로봇교육	미래의 로봇기술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자 웨어러블 로봇슈트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연건강 프로젝트(EM)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EM을 활용한 천연제품을 만들어봄으로써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북새통	문래동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의 영상제작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노인정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노안을 돌려다오' 활동을 합니다.
문화체육 분과	마을 운동회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여 전통놀이 마당, 겨루기 마당, 어울림 마당 등 건강한 운동을 통해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시콜콜 -목화마을 랜선 라이프	주민대상 유튜브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래동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힐링 밸런스	가족, 친구, 지인 단위로 모여 의식주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심신을 힐링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 관련 기획 및 활동 지원을 합니다.
환경복지 분과	행복나눔! 반찬나눔!	외부활동이 단절된 독거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초청하여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나누며,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소확행! 반려식물키우기	외부 활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제공하여 식물을 키우는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래 에코 축제	환경 보호를 주제로 주민과 함께 친환경 축제를 개최합니다.
자치회관 분과	문래, 사람책	사람책 발굴 및 발굴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을 방송 스튜디오 마련	장비운용교육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이 손쉽게 미디어 관련 활동을 접해볼 수도록 합니다.

2021년 양평2동 실행의제

실행분과	사업명	어떤 사업일까요?
복GO받GO (나눔복지)	어우동동 손에 손잡고	틈새가정 어르신들을 선정하여 주민, 청소년과 함께 일일가족으로 연결하여 봄, 가을 동행 나들이를 합니다.
	선유마을 복상 받으세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주민, 예술인, 청소년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깜작 공연 등을 함께 진행 합니다.
선유마을 기지국 (홍보미디어)	선유마을 신문 제작 배포	마을 소개와 자랑을 담은 선유마을 신문을 제작 배포 합니다.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이야기 (역사교육)	마을을 알면 애정이 싹튼다	선유마을 해설사들과 함께 마을 역사와 이야기, 장소를 돌아보는 마을 투어를 진행합니다.
	제2회 선유 물놀이장	마을 학교 운동장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마을 아이들 누구나 쉽게 놀 수 있게 합니다.
	선유마을 이야기 발굴 기획사업	선유마을 이야기 시즌 2 발간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여 주민에게 마을의 소소한 역사를 알립니다.
선유문화예술 (문화예술)	행복한 선유예술 플랫폼	기존 마을 축제에 대한 점검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합니다. 자원조사 컨설팅을 통해 기존 마을 축제 등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선순환 마을 장터	마을 주민과 예술인,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한 달에 한 번 관내 아파트 선정, 주민 스스로 장터에 참여, 친환경 마켓 실천합니다. 그룹별 이윤보다 마을성을 가지고 공통으로 분배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유자연환경	자연이랑 함께하는 선유 거리	거리에 특색있는 화분을 설치합니다. 가로등과 나무 사이를 분위기 있고 쾌적하게 된 거리로 조성 (꽃 거리 만들기)합니다.

2021년 신길5동 실행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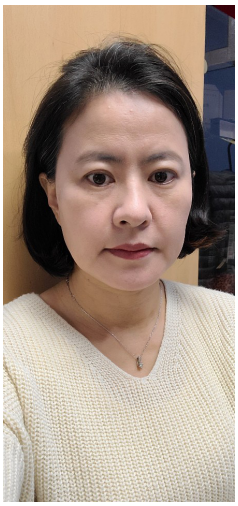
실행분과	사업명	어떤 사업일까요?
자치회관 기획홍보	금연거리만들기	주민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담배꽁초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을 조성합니다.
	꼬꼬마 영화제	신규 주민과 기존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신나는 문화 예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마을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동네에서 향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 참여 연주회 개최 등 다양한 장르별 문화예술 마을로 조성코자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 청소년 인권교육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자립심,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통놀이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해 다문화를 포함한 관내 아동, 청소년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 규칙에서 협의, 소통, 공정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복으뜸 건강복지	어르신 말 벗 사업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인터뷰로 어르신 자서전 제작을 합니다.
쾌적한생활	깨끗한 우리 골목 만들기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관한 홍보를 합니다. 관내 아이들과 재활용 공예품 활용으로 함께 하며, 숨쉬는 골목 만들기로 주민의식을 개선합니다.
	우리 골목은 내가 지킨다	골목지킴이를 모집하여 어두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화단, 텃밭 조성으로 골목 환경을 개선합니다.

2021년 대림1동 실행의제

실행분과	사업명	어떤 사업일까요?
자치회관 운영	깨끗하고 안전한 조롱박 마을 지킴이	대림1동을 시민의 참여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야간 순찰 활동과 기록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을 주민의 품으로!	대림1동 자산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의 마음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주민 한마당 조롱박 문화 예술 체육대회	마을 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참가자 공개모집, 다양한 홍보로 준비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롱박 문화예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우리 마을 안심닥터 구급함	신체상의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용 가능한 대림1동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담은 구급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공감 문화 백일장, 문화의 밤	대림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다문화 공감'을 주제로 하는 문화백일장 개최, 수상작 발표대회를 통한 소통과 공감,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세미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수세미 공원길	대림1동 공원의 수세미 터널을 주민의 참여로 잘 가꾸고,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터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수세미를 활용해서 만들고 나눠요	수세미를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세미의 효능에 대한 인지를 확산하고 수강생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사람들 30인을 만나다!



여의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고은실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색연필이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서 상상만 해왔던 것이
주민자치회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의도에 사는 고은실입니다. 여의도에 산지 20년이 되었고, 마을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과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마을 미디어 활동과 샛강 자원봉사, 학습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기존에 해왔던 마을 미디어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결해서 활동해 볼 수 없을까, 발달장애 친구들이 마을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행복한미디어분과의 2021년 의제 실행 사업에 장애에 관한 의제가 선정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또 '세잔을 꿈꾸는 남자'들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된 마을의제로 어르신들께서 제2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직장생활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치회 활동을 하니 회의 참석을 잘 못 하고,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갈까 하는 걱정스러운 맘이 듭니다. 앞으로 직장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불씨가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마을 안에서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분과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의제가 너무 많아서 한 의제가 선정되기가 힘들고,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여의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김시열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행복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인생 이모작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해서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 1학기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직하였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미력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싶어 하던 차에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치위원이 되고 보니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쁘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올해가 주민자치회 시행 1차 년도인데 코로나19로 자치위원들이 의제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내년에는 의제 활동을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맘껏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 살고 싶은 여의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교육, 교통안전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샛강도 전과 다르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여의도라는 주거지 옆에 샛강생태공원과 여의도

공원 같은 좋은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차 년에도 주민자치회에 참가했는데, 그 성과를 평가해서 2차 연도에는 좀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에게 알리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활동 이외에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거나 정책당국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의제 선정 시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집행상의 집행 기준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컨대 여의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행복 강의나 친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여의동 주민자치회 행복한미디어분과장 | 신시란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변화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또 지역사회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큰 변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의동 트럼프월드에 사는 여의동 주민자치회 행복한미디어분과 신시란 분과장입니다. 저는 평생, 직장을 다녔는데, 주로 외국계 회사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고, 은퇴 후 여의동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화학컨설팅회사에서 관리 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영등포구 옥외광고 심사위원회 위원이고, 영등포구의 역사를 정리한 '영등포구지'를 재발간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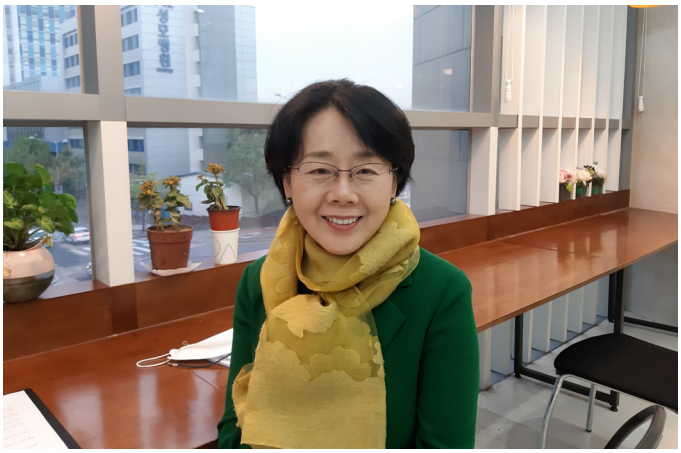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2014년 직장을 은퇴했을 때, 여의도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음에도 이웃분들과 동네를 잘 모르고 있었음을 느꼈고, 때마침 여의동 마을계획단을 모집한다는 배너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동네와 동네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직장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동네 분들을 많이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많이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마을계획단 문화분과 활동을 통하여 '여의도 마을지도 발행', '문화해설사 양성(30명)', '청소년 미디어 교육(여의도 역사적 변화기록, 스몰미디어 트레이닝)', '너섬 마을 기록단(30명)', '너나들이 팟캐스트 방송(20명)'들을 하였고 특히 '너섬 마을 기록단'과 '너나들이 팟케스트' 활동은 4년 차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소속 활동으로 행복한미디어분과에서 여의동 남자 주민분들의 미술 취미 활동인 '세잔을 꿈꾸는 남자들(8명)'을 조직하여 지원하였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도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처음에 좋은 의도로 참여하셨다가 도중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 교육을 할 때 촉진자들이 정형화된 교육 내용을 변화 없이 강의하기보다는 동네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과 원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에는 자신과 가족, 친지 중심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관점으로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가 현재 사회적,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살기 좋고, 자녀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영등포구와 서울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의도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여의도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강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섬입니다. 한강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하는 데 주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의도 발전을 위해서 방송, 금융, 정치 허브로서의 위치를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젊은 층과 어린이들이 편하게 생활하고 교육환경도 좋으면서 즐길 거리도 많은 활기찬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여의동 주민자치회 신명나는문화분과장 | 임영자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일상이고 행복이다.
왜냐하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하기 때문이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에 36년째 사는 여의동 주민자치회 신명나는문화분과 임영자 분과장입니다. 구립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에서 정보화 교육 보조강사로 봉사활동하고, 독거노인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2018년의 여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감사 경험의 노하우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고,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2020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여의동을 위한 의제 발굴과 세부 계획을 세워 실행까지 진행한다는 점이 정말 뿌듯합니다. 분과원들이 숙의,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짜릿하다고 해야 하나요?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아쉬웠던 점은 2020년 실행 의제인 「스마트폰 세상 속 여의도 들여다보기」 사업을 코로나19로 미루어 10월 19일에서야 시작을 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교육, 행사 참석 횟수가 많아서 부담됩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의도 즉 우리 마을에 관심이 커졌으며 길을 걷다가도 위험한 곳이 보이면 안전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분과장과의 학습을 통해 정보공유, 분과원끼리 분과 주제를 토론으로 정하고 실행하다 보니 마을에서 주민들과 친해지고 생활이 활기차



고 행복해졌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의동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 발굴과 세부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여의동 주민이 여의동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가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어 성과가 보이면 저절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참여가 관건입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여의동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장 | 장심형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인생이다.
저는 지금까지 1년에 150여 시간의 봉사를 학생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여의도 마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분과장 장심형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딸이 여의도 중학교 들어가면서 샤프론 봉사로 시작해서 진행 중이고요. 한국 여성 유권자 서울연맹 영등포 지부장, 한국무선가족봉사단 아마추어 무선햄자격증으로 소방, 마라톤대회 등을 응급통신으로 지원하고, 레이크레이션 강사와 풍선아트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학생 60명을 구성하여 복지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같이 봉사하시는 분의 추천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중 봄꽃 축제 때 부스를 받아서 이름표 달아주기와 풍선 불기로 학생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주민자치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분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의 격려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보람이 있고 신이 납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어르신을 모시고 일을 하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분과원들이 바쁘다 보니 협조가 신속하게 안 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빨리 친숙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에는 봉사활동 위주로 경로당이나, 빵 만드는 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요즘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많은 분을 알게 되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숙 교육을 받으면서 분과장님들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조언도 해주시는 도움이 되는 사이여서 일하는데 신이 난다고 할까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분과에서는 명품생활기록부 만들어주기, 내비게이션 의제를 실행했습니다. 상담 컨설팅이나 지문 검사를 하여 적성과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로 학생들을 개인 상담하여 교육하는데 또는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여의동 주민자치회 너섬환경분과장 | 최경자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책임감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정신적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의도 미성아파트에 사는 최경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너섬환경분과 분과장입니다. 미성아파트 내에 있는 북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데리고 6년 동안 박물관 즐기기 프로그램으로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어 쉬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박물관 공부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마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7년째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여의동에 '50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연필 스케치를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마을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을 장터에서 미술 작품을 전시할 때 주민들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더하여 전국 연필 공모전에서 입선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관심사로 이해해주시고 대화가 잘 되어 좋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여의도에 제물포터널 설치가 반대로 무산되고, 주민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한 의제가 결정되면 그해에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기고 관심이 커졌습니다. 여의도 공원이나 샛강을 산책할 때 조형물 하나에도 환경과 자원 보존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장 난 시설물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항상 신고하고 확인 점검하게 되고, 가지치기에 관한 관심과 점심시간에 담배 피우는 그룹을 보면서 사무실 근처에 환경을 생각해서 담배 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마을을 더욱더 사랑하고 남편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여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의도를 만들고 싶어요. 여의도에는 시멘트 담장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벽화 그림을 그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싶고, 기념으로 나의 붓 자국도 남기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담장벽화 그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일을 할 때 봉사하고 싶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김성한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실험실이다.
처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처음 맞는 비대면 사회, 처음 맞는 주민자치의 실현.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는 실험실같기 때문이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래동에 거주하고, 칠성DNK 외식업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YDP미니스트리' 청년단체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영등포 영커넥터스' 청년 멘토로 활동 중입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지역주민의 권유로 들어왔습니다. 영등포의 청년들, 문래동 청년단체와 청년 멘토를 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 지역사회의 낮은 자를 섬기는 나눔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와 도시락 나눔 봉사단, 신길 대림동에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무료급식사업과 영등포역 뒷 쪽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후원보다는 청년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한 수입의 일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을 못 해서 아쉽지만, 마을의 현안들을 알게 되었고,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숨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네가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인지 비대면 사회가 갑자기 와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고 어려운 점입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서 동네를 바라보는 인식,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마을에 필요한 점,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정해진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문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자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의 바람으로 청년들을 위한 장소를 올해 마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자살률이 높습니다. 정서적인 교류와 고립에서 벗어나 마음의 병을 공유하여 해소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소통, 이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자생적 경제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래동 예술창작촌의 지역 특색을 살려서 예술인과 청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신적 물질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 김수영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활력'이다.
강의와 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힘들고 쉽지만은 않지만. 마음을 내어 참여하고 주민들과 함께함으로써 힘이 나게 되는 주민자치회 활동은 나에게 활력소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래동 자이 아파트에 사는 김수영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EM과 천연제품, 공예, 풍선아트 등 여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구립어린이집 지역운영위원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과 노인 취약계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아파트 봉사단 연합단장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문래 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구립 영등포문화원 운영위원과 영등포구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결혼하고 목동에서 21년을 살다가 문래동에 이사 온 지 이제 겨우 10년이 되어갑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내 하수구의 심한 악취로 정말 다시 이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유용한 미생물인 EM이었지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을 살피게 되면서 고양시로, 은평구로 EM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을 모아 EM을 알리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하나 보다는 여럿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의 일이 더 기억이 나네요. 그걸 얘기해도 되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일원이 되어 지역을 더 알게 되고 지인들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심한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 2억 8천만 원을 받아 자원순환센터에

악취 저감 시설과 EM 발효액 배양시설을 설치해 관내 18개 주민센터에서 EM 발효액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막대한 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낸 저의 노력을 구청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어 '구청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쉬움은 있겠지요. 하지만 후회를 하며 주저앉기보다는 개선을 위한 자기반성을 하며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마을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EM을 알리면서 악취가 줄어들고 수질이 개선되는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들과 모여 천연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세제 등 천연제품을 만들고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나름 뿌듯한 마음과 성취감이 들곤 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문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020년 문래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내려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모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자치활동을 함에 따라 마을에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며 자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닌 우리로서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환경복지분과장 | 박문순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것을 하고, 다른 선진주민자치회 견학을 가보면 잘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일하면서 소통하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래동에서 45년 거주한 토박이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30여 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9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4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목화마을사업단 단장을 하면서 중지되었던 사업을 재개시켰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 알려져 2016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30년 봉사상을 받았고, 그해 23회 영등포구민의 날 환경 부문 구민상도 받았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결정된 내용을 실행 할 수 있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 제도를 배우고 홍보하여 주민을 위하고, 마을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을 못 했지만, 예전에 주민자치 위원장을 하면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하여 농촌일손 돕기를 하였습니다. 문래동 특화사업인 목화마을 사업단 단장을 하면서 많은 경비의 소요로 중지되었던 목화 축제사업을 지역의 어른들과 단체의 지원, 자비를 들여 목화 축제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뿌듯합니다. 목화 마을 축제 때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지금도 농촌 분들과 직거래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또한, 목화 사업이 번성 되어 목화로 인해 많은 일을 하고 지금은 사업단에서 분리되어 문래동의 특화사업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아쉬운 점은 장학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예를 들어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그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인원 충족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다른 단체는 봉사를 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내가 찾아서 스스로 일을 해야 하는 즉, 어떤 일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쉽고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문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학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동참한다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장 | 유은옥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아름답고 다양한 꽃이 많은 꽃밭과 같은 정원이다.
정원은 향과 색이 다른 다양한 꽃이 있어 가꿀수록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정원과 같은 문래동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래동에 거주하고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 분과장을 맡은 유은옥입니다. 문화예술 기획과 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협치 위원으로 일하고, '영등포 어깨동무'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을 받을 때 '자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것이라 마을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마을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육받고 활동하고, 제가 알고 있던 나무 울타리를 하나씩 세우면서 함께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소풍 같은 기억으로 좋았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시작 단계에서 걸음마를 떼는 게 어려웠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생각을 하는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겪으며 융합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소통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래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웃분들을 알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문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주민자치회가 마을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고, 문래동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정해자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제각각 본연의 맛을 가진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졌음에도 조화로운 맛이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성 다른 개인들이 한뜻으로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가장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비빔밥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래동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맡은 정해자입니다. 현재 문래동 통장연합회 회장이며 목화 사업단과 자율방범대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변의 권유와 문래동에 대한 애정, 달라지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들어왔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문래동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문래동 주민자치회 환경복지분과 일원으로 독거 어르신들께 반찬 해드리기, 정화 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활동이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문래동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이 아쉽습니다. 또한, 문래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가 많아지면 더욱더 좋은 문래동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에는 마을에 관한 관심은 있어도 그게 단순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공사를 하면 왜? 행사하면 왜?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문래동 마을 변화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 전환으로 늘 '누군가 하겠지'라며 소극적이던 제가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변화가 생겨 자신도 놀랍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문래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젊은 층의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좋을 활동적이고 참신한 사업을 기획해서 젊은 층이 이사 오고 싶어하는 그런 활력 있는 문래동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주민자치회 위원 | 정경원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이웃사촌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 집이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가 사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2동에 20년째 살고 있고, 노무법인 회사에 다니는 선유문화예술분과 위원 정경원입니다. 마을에서는 마을계획단에서 했던 연장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마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저는 2015년에 시작한 마을계획단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을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여, 적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활동을 못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숙의하고 소신을 발표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배려하는 과정 또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낮에 하는 모임과 회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고 아쉽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살던 주변의 사람이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마을 일에 관심이 생기고, 개인적인 일상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양평2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어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기도 하고, 마을에 사는 모두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계기를 만들고, 인식 전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주민자치회 위원 | 정미란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또 다른 고향이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마을 공동체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고향이 될 것 같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2동에서 20년간 살고 있고, 현재 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 활동을 시작으로 4년째 일을 하고, 마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마을계획단을 시작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하다 보니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고 좀 더 확장되고 체계적인 마을 일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위원들이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 신, 구세대들의 의견이 양립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존중과 배려로 조율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이번에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의견 표현을 기명 투표로 하니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신 있게 무기명 투표방식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한동네에 살면서 때로는 소신보다는 배려가 먼저일 경우도 있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여기에 15년 동안 살면서 슈퍼 세탁소 치과 3곳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잘 지내다 보니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이 생겨 마을 일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양평2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앞에서 일하기보다는 뒷정리하고 챙겨주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 정재호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도록 여기게 만든 단체이다.
과정을 잘 만들어 놓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가다 보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결과가 작고 앞으로 많이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과정을 잘 만들어가다 보면
풍족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2동 토박이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사업감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떨리는 마음으로 맡고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는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조기축구회 등에서 활동하고 양평동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장을 하다 보니 주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중공업 지역과 복합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피해는 주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 도움에 대해서 주민들끼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작년 가을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어 자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에 개인으로 민원을 넣어 보기도 했지만,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제 눈에 띄고 알게 된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고 토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들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이 상쾌했고, 모인 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주민의 일보다는 행사와 관련된 일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되는 모습도 좋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편의시설이나 민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행사나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민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해야 하는 상황이니 가치관이나 생각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제가 가진 직업도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더욱더 주변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생각하는 비중이 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양평2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전화 창구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OOO-OOOO으로 전화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주민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 있게 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주민자치회 마을이야기분과장| 하혜진

나에게 주민자치는 아이들의 미래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가까운 이웃 가까운 마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2동 주민자치회 마을이야기분과 분과장 하혜진입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마을계획단에서 2년 동안 간사를 했었고 그때 사업이 재미있어서 연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동네 주민을 많이 알아간다는 건 내 동네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사업 몇 가지 중에 아무래도 결과물이 가장 좋은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수영장 사업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뿌듯했으며, 팟캐스트 선유 방송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10월에 선유 등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뿌듯한 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고요.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마을계획단과는 다르게 여러 어른이 많이 계셔서 의견 조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통이 함께 되지 않아 더욱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공무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조금 더 잘 유지해야 한다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양평2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지만 내년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 잘 사용을 못 할 것 같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영장을 계획해 놨는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주민자치 학교를 하고 싶고, 만약에 코로나19로 수영장 운영을 못 한다면 물총싸움 놀이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으로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들이 판을 크게 벌이면 남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동네 혜택이 갈 것이고 그것이 동네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주민자치회 복go받go분과장 | 황맹덕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힐링하는 것이다.
마을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봉사도 하니
심신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양평2동에서 31년째 사는 주민자치회 황맹덕 분과장입니다. 주부로만 생활하다 지인의 권유로 통장을 하게 되었고, 통장연합회에서 총무를 3년, 회장을 2년 하였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일과 자원봉사연합회에서 감사를 맡아 봉사를 하고, 양평2동 새마을부녀회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위촉되었다면 주민자치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들어와 자율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마음이 끌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은 못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분과원들과 함께 마을을 위해 회의나 나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고 또 다른 삶을 보면서 배울 점이나 깨달음을 느꼈을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마을 사업을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신 구세대들이 의견 교류가 잘 안 될 때가 아쉽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에는 양평2동 토박이인 남편과 결혼해서

지인 외에는 소통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변화에 관심이 생기고 책임과 주인의식이 생겼습니다. 신세대들의 생각도 알게 되니 자식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저 자신이 밝아지고 주변인을 볼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점이 감사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양평2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과장으로서 내년도 의제를 분과원들과 무리 없이 잘 수행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 동네 어려우신 분들과 동행하고, 마을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 나와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여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양평2동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신길5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강재희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관심과 실천이다. 관심을 가져야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길5동에 36년 정도 살고 있고 현재는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등포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23년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신길5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새마을부녀회에 집중하느라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사실 딱히 뭔가를 할 게 없었기도 했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는 동네를 좀 더 알아가고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과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에 벽화 사업을 했어요. 너무 이쁘게 그림이 잘 나와서 학교와 주변에서 고맙다는 말과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아이들이 막 등교를 시작할 때쯤에 맞춰서 그 일이 끝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도 거리가 너무 이쁘고 환하게 변했다고 좋아하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일들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아쉽죠. 진행한 벽화 사업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쉬워요.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이 동네의 주인이 되었구나' 하는 주인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은 주어진 일을 일회성 행사로 치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뭔가를 잘해야겠다는 마음과 스스로 찾아서 세심함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길5동은 주민센터 근처에 넓은 근린공원이 있어요. 내년에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실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일환으로 주민들하고 아침 운동을 계획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계획이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도 3층에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넓혀 가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위원 | 권순호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조직화 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중구에서 하고 있고 생활 주민으로 신길5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신나는문화예술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을 만나고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고,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동자치지원관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일의 뜻과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안건을 내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을 얻기 위한 투표 등을 위해 공원, 지하철역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러 갔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직장인으로 참여하다 보니 업무 이외의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하고, 거주민이 아닌 생활 주민으로 참여하다 보니 이 지역을 잘 모르기도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시급한지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을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일을 찾거나 만들 때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속해 있다 보니 저는 아무래도 아동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특히 제가 속한 분과에서 아동의 놀이, 놀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나누고 진행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쾌적한생활분과 총무 | 김영란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즐거움이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회원들을 만나서 개인사도 이야기하고 마을 이야기도 하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길5동에 살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쾌적한분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외에 자율방재단에서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체육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통장으로도 6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4년 정도 참여를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한다는 것을 알게되고, 주민자치학교도 이수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수 있었어요. 그동안 마을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더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월1회 마을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을 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청소를 하고 동네가 깨끗해진 것을 보면 기분이 정말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분과에서 안건을 내고 의제를 만들어가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회의에서 의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건을 내고 해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익숙한 일이 아니기도 해서 편하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를 말하면 오해가 생길까 하는 염려 때문에 조금 소심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 첫해기도 하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탐방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회의가 많으니 말할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분과 회의 때.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하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생각과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서 뭐가 하고 싶다기 보다는 주민자치회와 다른 직능단체들이 잘 연계해서 마을 일을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위원 | 김창배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귀중하다.
왜냐하면, 의견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다 공동체와 지역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런 생각 없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길5동에 살고 있고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외에 자율방범대, 영등포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동에서 25~26년 정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처음 주민자치회를 접했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뭘 하는 조직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위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학교에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동네와 영등포구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 모르는 것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분과별로 소통하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과제를 만들어내고 투표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앞으로 한 과제가 끝나면 또 다른 과제를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시 거치겠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생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시간을 내고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서 미리 일정을 맞춰 놓긴 하지만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잡히는 일도 있어서 시간 안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많이 못 도와주는 점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의하면서 느끼는데 남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가 잘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은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과제를 만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으니 이후에 또 과제를 발굴해서 잘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간사 | 변진종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연구대상이다. 주민자치회가 우리에게 과연 맞는 것인가? 맞는 것이라면 속도나 진도는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하는지, 동별로 개인별로 다 다르니 신길5동에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길5동에 35년 정도 거주하고 있고, 자영업을 하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신길7동으로 영업장을 이전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고 신길5동 자율방범대에서 15년 정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와 상가 회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이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3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홍보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바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장님의 권유였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그런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분들이 잘 호응해줄까 싶었는데 힘들다고 하면서도 같이 모이고 움직여주고 하는 게 놀랍고 뿌듯한 변화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만 더 있다면 더 잘 모이고 더 잘 해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간사로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능력 부족이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이 하기엔 간사가 하는 일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모든 일이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집행까지 해야 하다 보니 계획을 대충 세우면 실행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진행하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활동과 실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간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간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부분을 숙고하면서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위원 | 서문우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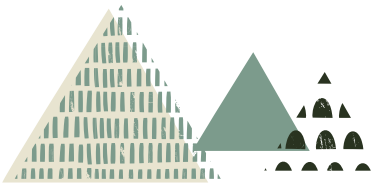
저는 신길5동에 16년 정도 살다가 2년 전에 대림3동으로 이사를 했고 현재는 직장을 둔 생활 주민으로 신길5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했고 통장으로 일하기도 했고 현재는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새마을협의회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면서 생활 주민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신길5동에서 직능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자는 위원장님과 동장님의 권유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먼저 시작한 다른 어떤 구의 예를 보면서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이권단체들의 참여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하더라도 조금 더 상황을 본 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과 활동도 많이 하지 못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발대식과 자치위원들이 열심히 본인과 타인의 생각을 잘 조율하면서 내규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고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되었고, 저희 분과



에서 낸 3개의 의제가 모두 채택이 된 것도 뿌듯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안건을 공유했던 것도 새로운 것으로 기억이 나긴 하네요.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속한 분과가 신나는예술문화분과예요. 처음에는 저희 분과가 청소년 분과였어요. 저는 청소년 활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관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나는예술문화분과로 바뀌니까 제안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채택되긴 했지만 뭔가 예술 분야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 모호함이 생기더라고요. 분과 이름을 정할 때 청소년 분과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올해 활동의 미진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맵핑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도 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없는 장소 등을 알려주거나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 차원으로는 영등포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일들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여가부와 청소년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성취 보상제인데요. 자기 도전, 신체활동, 자기 계발, 봉사활동 등 4가지 활동을 계획을 잡고 6개월을 완료하면 청소년에게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제도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신나는문화예술분과
총무 | 허승지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조직화 팀에서 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만나면서 마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고 신길5동 생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하는 일이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을 네트워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동자치지원관님의 권유와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사업을 주민들과 논의하고 진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동자치지원관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간사님이 기억에 남네요. 그 외에도 이 동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총회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전단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들을 카톡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모이는 시간이나 구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참여 연령대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직장이 이곳이라서 생활 주민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제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는 복지사라는 직업 특성상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을 늘 경험하고 있어서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일의 특성상 저는 아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신나는문화예술분과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팝업 놀이터 등을 의제로 제안했었어요.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의 놀 권리 등 아동과 관련한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행복으뜸건강복지분과장 | 현순열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가치관이다.
저의 좋은 가치관을 주민자치회에 잘 담고 반영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신길5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길5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행복으뜸건강복지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길5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는 40여 년이 넘었어요. 주민자치회 전신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 년 넘게 활동했고, 마을문고에서 25년간 봉사활동하고 있고, 영등포경찰서 신길5동 분회의 회장직을 맡아서 불우 청소년, 어린 학생들 장학금 전달 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을 장학회 2곳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었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도 4년 정도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동장님의 간곡한 권유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웠으나 기간과 자금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이 전에 어르신들 생일상 차리기를 했을 때 감격해서 끌어안고 울던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생일상 처음 받아봤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던 어르신들 때문에 보람을 느꼈고 그런 충격이 저한테 봉사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기대와 달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던 것이 가장 아쉽죠. 일 년이라는 시간을 간단한 활동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오로지 주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양도, 활동 범위도 넓혀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 좋은 일만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신길5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분과장으로서 초기치매 어르신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또 연세는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영정 사진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일도 하고 싶어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까 단 몇 분만이라도 해마다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싶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수세미분과장 | 방경석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행복함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를 맺고 화합을 하니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88년도에 이곳 인심 좋은 대림1동으로 온 후로 지금까지 33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수세미 분과장으로 현재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통장 일을 6년 정도 했고 통장연합회에서 총무로 역할을 하면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3년 정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조롱박 마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작년에 통장을 그만두고 활동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면서 활동적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 주면 어떻겠냐는 동장님의 권유로 현재 수세미분과에서 활동하는 몇 분들과 함께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지만, 그동안 마을 일을 한 경험상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참여하게 되었어요.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동심과 유대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주민자치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다니며 홍보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7월 정기회의에서 수세미분과원들과 의제 발표를 준비하던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시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렵죠. 분과회의와 정기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순찰과 조롱박에 물 주는 일도 지속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늘 부족하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아서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것도 매우 아쉽죠. 지원관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저희가 잘 알아야 지원관님이

덜 힘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원관님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책임감이죠. 분과장을 맡고 있으니 분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하지만 분과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좋은 의제들도 많이 내주시고 회의 끝나고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화합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힘이 나긴 해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더 심사숙고한 후에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체육분과장 | 신동연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림1동에 40년째 살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회 문화예술체육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대부터 유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6년간 통장을 했고 현재는 대림1동 새마을금고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는 기획사를 하면서 각종 행사 이벤트와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을 이어나가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참여해서 의제를 만들고 공감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대림1동 발전을 위해서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의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면서 교육이나 회의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시간 할애가 더 많아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많은 시간을 내야 하니까 자칫



주민자치회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의 참여 유도가 어려울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스스로 참여하려는 것, 전에는 결정된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니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낸 의제에 대해서 발표도 해야 하니까 더 잘 듣게 되고, 발표력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의제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림1동 주민센터는 부지는 넓은데 문화시설 등이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주차시설을 들이고, 위층에는 문화시설 등을 만들어서 풍요로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도 많아졌는데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행사 때마다 다른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재정 때문에 이어갈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를 다시 하고 싶어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살기 좋은 대림1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교육복지분과장 | 신동철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활력소다.
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오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제게 활력소가 됩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림동에서 태어났고 현재 대림1동에서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주민자치회 교육복지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통합방위 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림1동에서는 10년 정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의 연장 선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스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몰랐던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좋았던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진행되는 일들에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시간 내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총회처럼 치러진 7월 정기회의 때 우리 분과에서 낸 3가지 안건 중 2개를 채택하기 위해 만나서 홍보 영상 등을 만들고 했든 즐거웠든 활동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데 생업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위원인 지금도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은 늘 해왔기 때문에 마음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참가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급하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조바심 내지 않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분과에서는 이 지역에서 문화의 밤이나 취약계층의 아동과 병원 연계하는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매월 어려운 한 가정이라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분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솔선수범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운영분과장 | 전태영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변화와 개혁이다.
많은 사람이 열린 공간에 참여해서 결정해나가는 대림1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림1동에 사는 전태영입니다. 건축 실내인테리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치회관 운영분과장으로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주민자치회가 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서를 내고 교육을 받은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으로 활동하면서 동네일에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주민자치 시범동이 된 우리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힘도 들고 주민자치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시범동이나 보니 자료가 없어서 지원관님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거쳐서 매번 합의점과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행정이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 어려웠어요. 하

지만 주민이 이 동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주민의 위치가 사업을 책임지는 위치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힘도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으나 주민 총회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다 보니 여기까지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고 총회에서 주민들이 어떤 지지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과장으로서 내년도 첫 사업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주민자치회로 주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된 만큼 주민 모두가 관심을 두는 투명하고 탁 트인 우리 대림1동의 행정이 이어지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 최정택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사랑이다.
왜냐면 대림1동 주민자치회는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대림1동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 50여 년을 대림동에서 살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대림동의 변화를 쭉 보아왔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에만 참가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한 5년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10년 정도 통장을 했고 통친회 회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했다가 1년 정도 쉬고 있었는데 올해 주민자치회가 발족 되면서 지인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고,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들어오게 되었어요.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참 잘 조직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장단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잖아요. 자치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지원관님과 간사님의 발휘된 모든 역량에 힘입어 위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인원수도 많고 각자의 소리도 많지만 다른 단체와 달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단결해서 잘해오고 있어서 발족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깊은 정이 들고 애정이 갑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면 눈짓과 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웠어요. 전달하는 분들도 전달을



받는 분들도 모두 힘들었어요.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대림1동 주민자치회 자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니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림동은 조롱박 마을이니 동주민센터 입구에 그것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에서도 논의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것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대림1동 주민자치회 회계감사 | 한인기

나에게 주민자치회는 행복이다.
직장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지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동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80대 초에 서울에 와서 관악, 금천, 동작을 거쳐 현재는 영등포구 대림1동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일정을 맞추거나 저녁에 일찍 일을 마치고 주민자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림1동에서는 체육회에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동네 울타리 모임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Q2.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위 어르신들의 권유도 있었고, 대림1동에 대한 애착도 있어서 동네 발전된 변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듯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임원이다 보니 임원회의 등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서로 나누면서 조금씩 바뀌나가는 모습과 서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Q4.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혹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림1동 동사무소, 도깨비시장 등은 예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발전된 모습으로 개선하고 싶어요. 그 외에도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계획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5.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전과 후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위원회 때는 관 위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직접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만나는 횟수도 많아져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이 되니 대화와 소통이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Q6.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대림1동이나 주민자치회에 꼭 기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감사 이전에 위원이기 때문에 동네를 위한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가 서로 다툼 등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물질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고, 임기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넘겨줄 때 투명하게 잘 운영된 모범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4. 함께하는 사람들 _동자치지원관 인터뷰

여의동 | 윤순학 지원관

1. 동자치지원관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첫째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주변 지인분들과 함께 마을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나들이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동행하면서 마을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관찰자로 있었지만 한둘, 혹은 둘 셋, 때로는 여럿이 모여서 일을 기획하고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조금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던 와중에 영등포에서 주민자치시범동 동자치지원관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자치지원관을 해보지 않겠냐는 아내의 권유도 있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도 있었음에도 막상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니 기존의 안정된 일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촉진하는 동자치원관이 되어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의 길을 만들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여의동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혹은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의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여의동은 정치와 경제의 1번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의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타동과 달리 주민자치회의 첫 시작인 임원진 선출부터 사전입후보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 치열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원진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의 회의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능하면 매주 사무국회의(회장, 부회장 2명, 간사, 동자치지원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전체일정 진행에 필요한 중요한 회의가 되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동자치지원관으로서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 가장 역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전체 위원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역점을 두는 것은 정보제공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 모두 처음 경험해보시는 것이기에 낯설고 힘들어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국회의를 하고 난 후 주요일정과 필요한 전달사항을 담아 주간안내문 등을 만들어 카톡방에 공지하고, 자료 등은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점을 두는 것은 가능한 많은 위원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많이 만나 뵈려고 노력 중입니다.

4.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자치회 사업을 안내하면서 제가 드리는 자료 등을 꼼꼼히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료들이 일방적인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발적인 사고와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제안한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여의동 주민자치회에 40대 이하 세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0대 이하의 나이가 한참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세대라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민자치회가 널리 홍보되어 참여하는 세대가 다양해졌으면 바램입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문래동 | 양윤화 지원관

1. 동자치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은 마을에 주민자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의나 총회, 마을의제를 찾고 발굴하는 활동을 할 때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 두 가지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를 알리는 것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의 업무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지원관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지원한 건 아닙니다. 작년 2019년에 동자치지원관 면접을 보면서 초창기에 발표한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 되고 정착이 많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영등포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했을때, 면접 보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느꼈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됐던 결과들을 보면서 영등포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설레였습니다. 마음 벅찼던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자치지원관을 지원하고 면접 볼 때도 '저는 많이 부족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어렵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거야!"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지원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 9로 인해 주민자치 모임이나 운영이 어려울 텐데 매월 진행되는 주민자치회의나 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민자치회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8월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도 임원 회의 하고 저희 이번에 9월달 만큼은 sns로 대체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의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행정의 협력을 얻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동자치지원관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나 애로사항은?

'주민자치'를 하는 것 자체가 보람입니다. 애로사항은 지원관으로서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임원진분들과도 그렇고 회장님과도 수시로 전화드리고 수시로 공유할 사항들은 공유하고 해야는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같아요.

5. 문래동주민자치회 자랑은?

일단 회장님께서 기존 마을 활동 경험이 많은 분이십니다. 직능단체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셨기에 회의 진행이나 임원의 역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회의 진행도 잘하십니다. 다른 임원진들도 마을활동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의견들이나 제안들이 마을사업으로 전환될 때 이것을 이끌어 갈 분들이 현재 문래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양평2동 | 김미현 지원관

1. 동자치지원관을 하게 된 동기는?

영등포 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강사와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진로 관련 과목에서 고등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 설계와 진로 방향을 잡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역할들이 마을계획단 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고 주민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촉진도 하게 되었어요. 동네 홍 반장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주위 분들이 동자치지원관을 많이 권유해 주셨어요. 또 제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기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마침 마음 한구석에 있던 터라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분들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격려도 받고 보니, 자신감을 얻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상반기에 이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모임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매월 진행되어야 할 정기회의 이외에도 사업을 위해서 분과별로 활발한 만남과 회의 등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주민자치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정기회의는 한 명씩 주민자치회로 찾아오셔서 결정 사항에 서면으로 서명해주시고 개별적인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작성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2시간 정도의 회의면 끝날 내용이 한 사람씩 대면하다 보니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가 돼서야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려가서 서명과 의견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명씩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니 정말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서면 회의를 통해서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겼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회장님 인사와 공지 사항 등은 온

라인으로 미리 공유하고 직접 찾아오셔서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분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고 8월 모임은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진행되어서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9월 모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SNS나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지원관님은 양평2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리라 믿습니다. 양평2동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혹은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의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양평2동의 다른 동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중 사퇴하신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47명의 위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도 47명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신구의 조화가 잘 되어 있고 의사소통의 구조가 자리를 잘 잡았다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4.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가장 힘든 점은?

가장좋은 점은 기존에 제가 했던 마을활동들을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마을활동에 접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촉진할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동네 마중물로 생각하고 자주 오셔서 그동안 마을에서 경험들을 이야기 하며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는부분들은 소중한 저에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평2동은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올해 만들어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점도 빼놓을수 없는 자랑거리 입니다. 어려운점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수시로 다양한 소통과 촉진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회의에서 만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신길5동 | 윤영백 지원관

1. 신길5동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대림1동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골목에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네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동네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 각종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나도 한번 해보자해서 친한 이웃들과 함께 계획서를 내고 선정되 마을사업지기로 활동을 했답니다. 사업지기하면서 '마을지원활동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 2013년에는 마을사업지기로, 2014년~2019년은 마을지원활동가로 마을활동을 한거죠.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에 영등포구가 주민자치시범사업을 펼치면서 5개 시범동이 선정되고 그 동에 '동자치지원관'이라고 하는 활동가가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활동을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일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과 영등포구가 더 나은, 더 좋은 마을, 자치구가 되었으면 했고 그렇게 변화하는 길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에 '그간 마을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주민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원관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2.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요즘입니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신길5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회의, 총회를 진행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대나 20대처럼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사업단 회의, 자료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총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회는 신길5동 자치계획, 주

민자치회 운영, 마을의제 등을 신길5동 주민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총회 참석자 사전 명부를 작성해 놓고 상시투표소를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주민들이 수시로 투표할 수 있게 주민센터 내에 투표소를 운영한다든가 총회 안건들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을 회의실 또는 주민자치회실 계속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총회이니만큼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의견을 묻고 수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신길5동 주민자치회 내규에는 총회 최소 정족수가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더라도 100명 이상의 주민의견은 물어야 하니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것 같아요.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중입니다.

3. 동자치지원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주민자치회 위원님이 동네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주민자치회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하자고 해서가 아닌 스스로 한 것. 이 당연한 일이 지원관 입장에서는 엄청 감격적이더라구요. 골목길 청소, 나눔사업 등 이미 있었던 활동들이긴 하나 직접 하겠다고 오신 것을 보고 좋았어요. 동네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도 잘하시지만 조금만 더 지원하고 촉진하면 신길5동 주민자치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겠다. 지원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대림1동 | 김희명 지원관

1. 동자치지원관의 지원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다가 자치지원관이 된 경우에요. 제가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거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년(2019년)에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으로서 운영세칙 준비위원회에 함께 하던 중에 이곳 대림 1동 지원관이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권유를 받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력서를 넣었고 합격해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게다가 지원관의 역할의 큰 두 가지 범주는 주민자치회의 안착과 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제가 하던 일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라 적응도 쉬웠구요.

2. 상반기에 이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모임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현재 대림1동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초반 세칙을 통해서 대림1동 주민자치회 정체성 수립부터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전체 워크숍이나 큰 모임을 통해서 한 번에 결정해야 할 것도 서너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발제와 숙의, 의견 수렴 등을 한자리에서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소규모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행하고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해서 일이 많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한 지금은 그나마 대면으로 진행하던 분과회의도 SNS로 진행했습니다. 한 분씩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안건지를 공유하고 카톡방에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정기회의는 서면동의로 진행을 해야 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SNS나 온라인화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깊이 있는 숙의를 위한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운 과정이니 고민이 많아요. 오프라인으로 제일 좋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지원관님은 대림1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텐데 대림1동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혹은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의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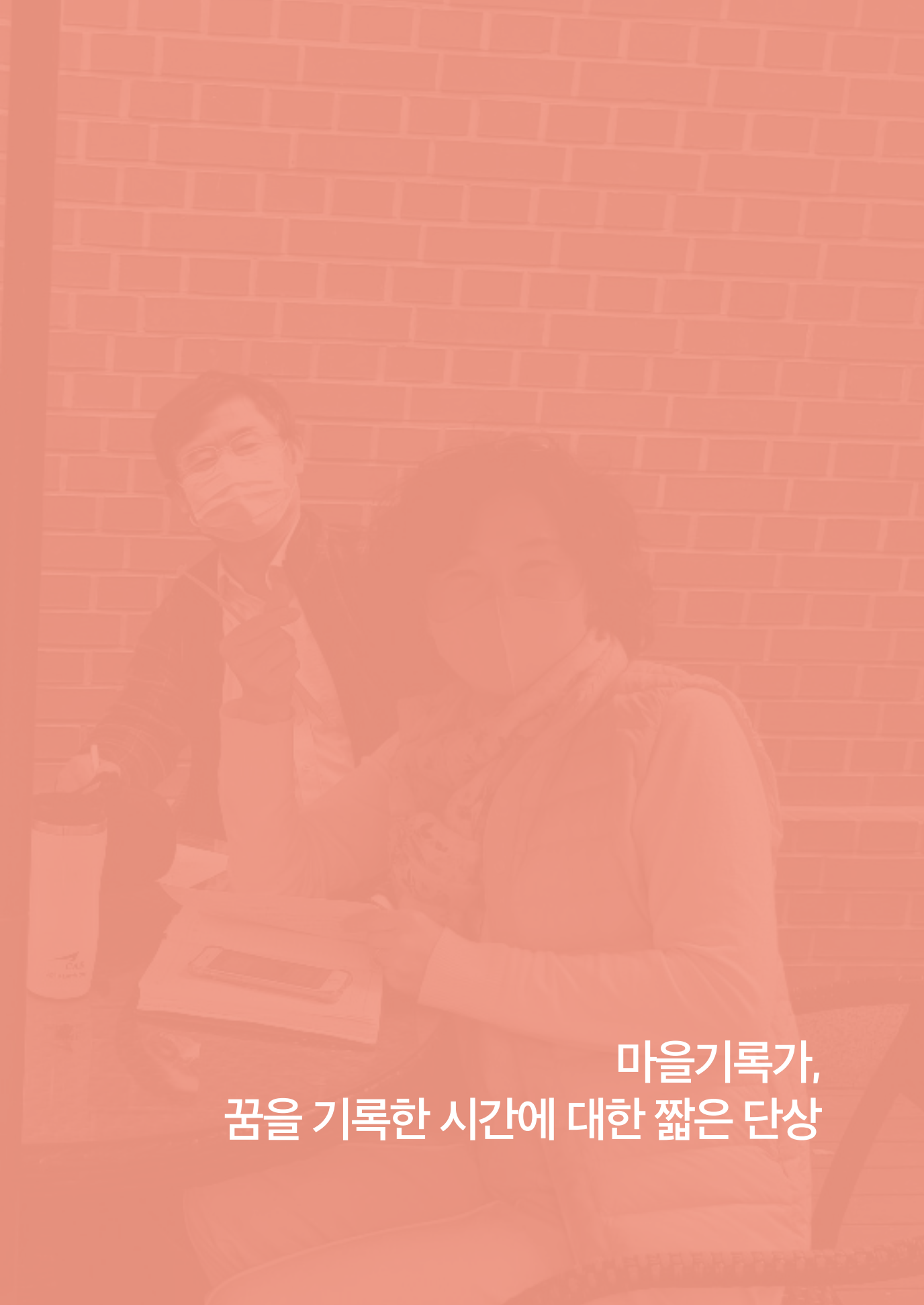
대림1동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대림1동을 대표하는 조롱박 수세미를 심고 기르고 가꾸는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주 2회씩 방역을 하고 있는데 선거기간만 빼고는 거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저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해서 '요기요' 방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일상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주민차치회 활동을 하니까 회장님, 간사님, 임원님들까지 업무량이 과다예요. 주말도 공원에서 조롱박, 수세미에 물을 주시거든요.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움직이는 분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게다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과제가 정해지시면 엄청 적극적으로 달성하려 하시고, 긍정적인 데다가 다들 우리 의제는 내가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도 추진력이 높으시고, 타고난 조직가인 간사님도 옆에 계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4.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성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좋아요. 초반에 회의 분위기와 지금의 회의 분위기를 보면 엄청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질의와 발언 때 문제의 핵심에 잘 접근하시고 이후 진전을 묻는 질의까지 하셔서 회의가 회의다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쁘고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하다 보니 저와 간사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힘이 들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야 하니까 생업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안타깝고 죄송하죠. 내용은 조금씩 진전되고 구체화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를 따르는 일이 단순한 반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런 점이 저를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록 |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마을기록가,
꿈을 기록한 시간에 대한 짧은 단상

마을 기록에 첫 발을 내디디며...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기록지원단 **이경희**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글을 써봤을까 싶을 만큼 글을 썼다.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는 일은 늘 망설여지는 힘든 작업이었다. 한 줄 글 남기는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는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글을 써야 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좀 털어버리고 싶은 바람이 크기도 했었는데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면에 남겨질 글 때문에 부끄러움은 얻게 되겠지만 쓰는 두려움은 좀 덜어진 것 같다.

마을기록지원단으로 영등포의 주민자치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록과 아카이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등포 구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여하며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알아가고 기록하는 기회도 얻게 되는 새로운 기쁨도 맛봤다.

기록을 한다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고 무엇보다 잘 보고 듣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된 일이었고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의 든든한 지원과 옆에 좋은 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와 윤재샘, 인숙샘, 승진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만일 내 자신을 기록한다면 어떤 삶을 어떻게 기록할까?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기록지원단 **이윤재**

새싹들이 자라 푸르름이 물오를 즈음, '마을 기록단! 영등포마을에서 무슨 일을 할까?'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어느새 결실이 맺어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생소한 부분들을 해내느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마을 일을 계획하고 토의하고 실행하는데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관심과 애착이 생겼습니다.

기록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연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제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만일 내 자신을 기록한다면 어떤 삶을 어떻게 기록할까?' 하는 자문을 하면서 평범한 삶 속에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제게 맞는 답을 찾았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에 나오는 인생 시계로 보면 제 인생 나이의 시계바늘은 하루 중 오후 7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앉아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다시 인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성장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만 보이는 것들로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는 지역에, 마을을 위해서 늘 배우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민과 함께하는 탁트인 영등포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20년도 인생 이모작의 수확을 소중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움주신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와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등포 사람이었다.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기록지원단 **노인숙**

고백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영등포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다닌 적이 거의 없었다.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지, 영등포에 산다는 것을 특별히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달 정도 매일매일 영등포구, 문래동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었다. 또, '마을', '동네'라는 단어는 도회지를 떠난 지방에서만 쓰는 말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동네 영등포' '우리 마을 문래동'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게 되었다. 영등포구의 땅모양이, 지도의 모양새가 어떠한지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도 되었다. 선유도공원과 여의도에서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양평동으로 이어지는 선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었다.

지난 여섯 달 동안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도 마을이 있고, '우리 동네' 영등포에도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주민 자치', '마을 공동체', '마을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게 된 것은 커다란 배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 마을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온 내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게도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기록지원단에 지원하던 순간은 '마을'이라는 단어도,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도 낯선 것이었다. 그냥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마을의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기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의 옛 역사를 찾아내고 그곳에 사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진솔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바로 '지금 여기 영등포에 있는 삶'을 만나서 기록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올 한해 아주 역동적인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영등포 구석구석 보물처럼 숨어있는 곳을 다 찾아내서 알리고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시고 활동을 독려해주신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기록하며 배웠어요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기록지원단 **이승진**

올 한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못 잊을 해로 오래오래 기억될 듯싶다, 코로나가 그랬고, 올 여름 태풍과 비가 그랬고, 내 나이 5자에서 6자로 넘어가는 것이 그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인 것은 마을기록지원단에 문을 두드렸고, 무사히 활동을 마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단지 글 쓰는 것이 좋고 뭔가 뜻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지원을 했지만 얻은 것은 기대 이상! 스스로 '많은 성장을 했다' 자랑하고 칭찬해 주고 싶다. 마을에 관심이 없던 내게 마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마을의 주인은 나임을 알게 해 준 고마운 시간들, 혹이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나 않을까? 살펴 주고 챙겨 주던 마을자치센터 식구들, 마음이 꽤나 잘 맞아 만나면 그냥 즐겁기만 했던 우리 팀원들과의 잊지 못할 시간들,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힘들면 나누면서 버팀목이 되었기에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인터뷰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따스했던 만남들, 하루 종일 기사와 사진 가지고 싸움을 하던 기억, 영등포 공간 소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예쁜 공간 책자가 발간되었을 때는 마중물같은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에 괜히 우쭐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그 무엇도 의미 없는 것들이 내겐 하나도 없었다. 영등포가 이렇게 살기 좋고 배려가 느껴지는 마을이란 사실을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알았을까? 마을 곳곳에 여성,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다는 것을 활동하면서 알게 된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 내일이면 마을 스케치를 나가야 할 것 같고 인터뷰 나가거나 기사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젠 활동을 접어야 할 시간이라는 현실에 아쉬움만 가득한 지금이다. 하루 일정을 알리는 카톡이 한동안 그리울 것 같다.

선생님들, 보고 싶을 거에요!

2020 영등포구

마을과 자치의 이야기

발 행 처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발 행 일 2020.11.
주 소 영등포구 양평로28마길 18-1
전 화 02-2068-6688
홈 페 이 지 www.youngmaeul.org
디 자 인 아리에뜨 ariette.co.kr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 「50+마을기록지원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활동처"에 있습니다."



2020 영등포구

마을과 자치의 이야기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